

(故)이이효재 교수 추모 및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

분단시대의 사회학, 우리 이론의 새길을 열다

일시 2021년 2월 18일(목)오후 1시
이화여자대학교 유튜브 [youtube.com/ewhauniv](https://www.youtube.com/ewhauniv)
주관/주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후원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Program

13:00~13:15 **개회식** 사회: 김정선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개회사] 강애란 (한국여성연구원)
[발간사] 이승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장)
[인사말]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13:15~14:45 **발표** 사회: 이재경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효재의 삶과 분단시대의 비판사회학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분단사회 여성운동의 역사와 과제: 호주제 폐지에서 낙태죄 폐지까지
김선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분단의 재인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재구성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45~15:00 **Break Time**

15:00~16:00 **토론 및 질의**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6:00 **폐회**

| Contents

발표

- 이효재의 삶과 분단시대의 비판사회학 1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 분단사회 여성운동의 역사와 과제: 호주제 폐지에서 낙태죄 폐지까지 67
김선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 분단의 재인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재구성 81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101
-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07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11

(故)이이호재 교수 추모 및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
분단시대의 사회학, 우리 이론의 새길을 열다

이호재의 삶과 분단시대의 비판사회학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이효재의 삶과 분단시대의 비판사회학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1. 이효재의 비판사회학

인류의 역사는 남성들의 역사History였다. 학문의 역사도 마찬가지였고 사회학의 역사도 그러했다. 콩트와 스펜서, 맑스와 토크빌, 베버와 뒤르케임 등 고전사회학자들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러나 사회과학과 사회학의 초창기에 독창적인 생각을 펼친 여성들이 있었다. 다만 그들의 지적 업적이 남성들이 드리운 그늘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¹⁾

한국사회학의 역사에서 이효재는 여성으로서 동시대 남성 사회학자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이효재는 해방 직후 미국 유학을 통해 사회학에 입문했지만 점차 미국 주류사회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독자적 패러다임을 추구한 실천적 비판사회학자였다.²⁾ 아카데미 사회학이 가치중립을 내세우며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연구에 주력하는 반면 비판사회학은 바람직한 가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1) 서양 사회과학의 역사에서 묻혀있던 여성 이론가들을 발굴해서 정리하고 소개하고 있는 캐나다 사회학자 린 맥도날드의 다음과 같은 저서와 논문을 참조할 것. Lynn McDonald, *Women Theorists on Society and Politics*(Waterloo, Ontario, Canada: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98); "Classical Social Theory with the Women Founders Included," in Charles Camic(ed.) *Reclaiming the Sociological Classics- The State of Scholarship*(Malden and Oxford: Blackwell, 1997); *The Women Founders of Social Sciences*(Ottawa: Carlton University Press, 1994). 페미니즘과 현대사회학 이론에 대해서는 Ruth Wallace(ed), *Feminism and Sociological Theory*, (Newbury Park, CA. : Sage, 1989) 참조.

2) 이효재의 제자 이재경에 따르면 이효재의 여성사회학은 기존의 패러다임(가부장제든 남성 중심적 학문이든)에 대한 도전이라는 뜻에서 한국 비판사회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한완상의 민중사회학은 비주류의 관점이라는 차원에서는 이효재의 사회학과 유사하지만 여성사회학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그 문제를 해결할 행위 주체의 형성과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한다.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비판사회학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를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³⁾ 1970년대 이후 형성된 한국의 비판사회학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라는 가치를 내세웠고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소외, 문화적 가부장제, 분단의 지속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시하였으며 민중,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지식인 등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설정했다. 흔히 한국 비판사회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한완상과 김진균을 떠올리지만 여성 비판사회학자 이효재의 독특한 위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효재는 한완상과 김진균의 스승인 이만갑과 이해영 세대에 속한다. 한완상과 김진균은 이효재가 1957년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사회심리학 강의를 듣기도 했다.⁴⁾ 이효재가 비판사회학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는 1970년대이지만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주류사회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작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비판사회학과 여성학을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이효재는 한국 ‘비판사회학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

이효재의 삶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공간, 6.25전쟁과 분단의 고착, 4.19혁명과 5.16쿠데타, 유신독재와 광주항쟁, 민주화와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20세기 한국 역사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의 사회학은 그런 역사적 상황에 대한 지적 대응이었다. 일찍이 1948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57년에 귀국한 이후 이효재는 가족과 여성을 주제로 하는 공동 조사연구에 참여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이르면 한국사회의 심층을 파고들지 못하는 조사연구의 피상적 성격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이효재의 사회학은 가부장제의 철폐, 민주화, 그리고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는 이념적 지향과 실천적 목표를 가진 비판사회학으로 바뀌었다. 이효재는 가치중립을 내세우는 실증주의 사회학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분단극복, 여성해방이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비판사회학의 지형 안에 한국 여성과 가족 연구의 뿌리를 내

3) 억압적인 체제하에서 비판사회학자는 해직, 구속, 고문, 추방의 대상이 된다.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비판사회학자들, 1980년대 남아공의 비판사회학자들과 한완상, 이효재, 김진균 등 한국의 비판사회학자들이 그 보기이다.

4) 훗날 한완상과 김진균은 이효재를 예우했다. 한완상은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1993년 통일부 총리가 되었을 때 이효재를 통일원 고문으로 추대했다고 증언했고, 김진균은 1980년대 초 해직교수 시절 해직교수협의회를 만들어 함께 활동하면서 이효재와 사회학적 관심을 공유했다. 김진균, 『불나비처럼』(문화과학사, 2005), 36쪽과 41쪽.

렸다.5) 삶과 삶, 학문과 실천의 일치를 추구한 이효재는 민주화운동, 여성노동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가족법 개정운동,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운동, 남북여성연대운동, 지역문화운동 등 여러 실천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팔순에 즈음하여 그는 자신이 추구한 학문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나에게 한국사회학은 민주화를 통한 통일에의 역사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회발전의 이론과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학문이었다.”6)

크게 보아서 이효재의 사회학은 실증주의 가족사회학 연구에서 분단시대의 가족사회학, 분단시대의 여성학으로 변화를 겪었다. 한국사회의 분단과 산업화 과정에서 가부장제 가족과 여성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한국 가족의 사회사와 여성 노동자의 역사를 여성 주체적 시각에서 다시 쓰기도 했다.7) 이효재의 사회학은 우리 사회가 겪은 역사적 체험의 맥락에서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경험적 연구를 축적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적 실천의 길을 모색한 한국 비판사회학의 한 줄기를 이루었다.

2. 이효재의 삶과 비판의식 형성 과정

가족을 연구한 사회학자 이효재가 볼 때 “가족은 사회조직의 가장 원초적 집단으로서 개인이 나서 자라며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보금자리다. 가족 속에서 자아중심적인 어린이들이 한 공동체 속으로 연결 지어지며 개인의 한계를 초월한 사회적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시련장이기도 하다.”8) 그렇다면 이효재는 어떤 가족에서 태어나 어떤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했는가?

이효재는 1924년 마산에서 아버지 이약신과 어머니 이옥경 사이에서 5남 1남 가운데 둘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마산의 사업가 집안의 딸이었다. 친가와 외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기에 개화된 분위기에서 딸 아들의 구별 없이 자랐다.9) 온

5) 이재경, “이효재의 여성·가족사회학”, 한국가족문화원 1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2004), 1쪽.

6) 이효재, 『조선조 가족과 사회-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한울, 2003), 10쪽.

7) 강인순, “이효재와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50집 4호(2016), 19쪽.

8) 이효재, 『가족과 사회』(진명출판사, 1979), 3쪽.

화한 성격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한 반면 어머니는 자식들을 청교도적 규율과 엄격함을 가지고 키웠다.¹⁰⁾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늘 ‘너희가 알아서 해라’는 말로 각자 자율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랐다.¹¹⁾ 가족예배 시간에는 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랐다. 아버지의 목회 임지를 따라 진주에서 유치원을 다녔고 부산에서 호주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호주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여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진폐교하자 아버지는 딸을 캐나다 선교사들이 만든 원산의 루씨여고로 전학시켰다.¹²⁾ 태평양전쟁 시절 이효재는 출전 병사 환송대회나 부상병 위문행사에 동원되기도 했고 조선의 독립을 원하는 글을 썼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여고시절에는 일본소설을 멀리하고 이광수의 『마의태자』, 『이차돈의 사』, 김동인의 『젊은 그들』, 『운현궁의 봄』 등 우리말 역사소설을 즐겨 읽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 형성된 이효재의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은 평생 그의 학문적 활동에 방향을 지시하는 등대가 되었다.¹³⁾ 이효재의 기독교 신앙은 민족의식과 더불어 여성의식을 갖게 했다. 일제강점기에 대다수 한국인들의 삶은 가족의 생존과 안정을 위한 유교적 관습과 무속적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양반과 상민,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분리와 차별의 벽을 허물고 만민평등의 사상을 가르쳤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자녀이며 신분의 차별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였다.¹⁴⁾

- 9) 이효재의 친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집안이고, 아버지 이약신은 주기철 목사와 오산학교 동기생이었다. 외가도 외할아버지가 일찍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니까 이효재는 3대째 기독교인이었다.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 녹취록”,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2015), 2쪽과 8쪽.
- 10) 이효재는 기독교적 집안 분위기가 만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다. “우리 가정의 청교도적인 분위기와 어머니의 민족문화에 대한 편협함으로 우리는 전통문화의 기반에서 뿌리 뽑힌 생활을 했다.” 이효재, 『아버지 이약신 목사』(정우사, 2006), 132쪽.
- 11)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녹취록”,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2015), 10쪽.
- 12) 이 학교의 영어 교사는 훗날 정신대 문제를 제기한 윤정옥의 외삼촌이었는데 1945년 이화여대에 입학하여 윤정옥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뜻을 모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제기했다.
- 13) 이효재는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으로서의 개종은 한국인들에게 바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꿈을 이루려는 욕망과 직결되었다”고 보았다. 이효재, 『아버지 이약신 목사』(정우사, 2006), 29-30쪽, 이효재의 가족사와 기독교 신앙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효재·이승희, “나의 학문, 나 인생: 이효재”, 『역사비평』, 24호(1994), 238-239쪽 참조.
- 14)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1996, 정우사), 131쪽

이효재는 루씨여고를 졸업하고 만주로 갔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주로 피신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친척들은 이효재에게 결혼을 강권했다. 그러나 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큰 일을 해야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그래서 가출을 단행했다. 훗날 독신으로 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효재는 이렇게 답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막연하나마 여학교 교육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집안이 어려우니 유학을 갈 수도 없고 열아홉 살 때 여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가 되니 정신대 문제가 생겼어요. (...) 당시는 가정과 직업의 양립이란 있을 수 없고 여자가 혼인한 다음에 진학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 혼인한다는 것은 막다른 종착역이었어요. (부모님이 결혼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꼭 소가 푸죽간 들어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약혼 말이 나오자 친척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¹⁵⁾

이효재가 독신 여성으로 꾀꾀하게 자신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고모 이시애가 있었다. 이시애는 부모를 잃고 난 다음 어린 동생 이약신을 목사로 키워낸 신여성이었다.¹⁶⁾ 일찍이 세브란스병원 간호과를 졸업한 이시애는 3.1운동 이후 만주로 건너가 신흥군관 학교 간호장교로 일했다. 그 후 귀국해서는 독립운동과 사회봉사를 하며 독신으로 살았다. 이시애의 기독교 신앙, 민족의식, 여성의식은 이효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¹⁷⁾

1945년 해방 되던 해에 이효재는 이화여전 문과에 입학했다. 1946년 이화여전은 이화여대가 되었다. 그 무렵 이효재의 관심은 문학과 철학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47년 11월 미군정청으로부터 여권 수속을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 해방 직후 이효재의 아버지 이약신 목사는 마산의 미군정청에서 종교와 문화 부문을 담당하던 미군정관이었던 카우치라는 인물의 자문에 응하며 가깝게 지냈다. 앨라배마대학 수학 교수였던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이효재와 이은화 자매를 위해 입학허가서, 왕복 여행경비, 재

15) 이효재·이승희, *잊을, 240쪽.*

16)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녹취록”, 2-3쪽. 이효재의 지적 지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대 신여성 전반에 걸친 이해가 필요하다. 일제 강점기 신여성에 대한 연구로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2004);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푸른역사, 2016);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소명출판, 2008) 참조

17) 이재경, *잊을, 6쪽.*

정보증서를 보내왔던 것이다. 미국유학을 떠나게 된 그 당시의 심정을 이효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야말로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에 사로잡혀서 그저 막연하고 관념적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여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떠났습니다. 몇 년 정도 있겠다는 생각도 물론 없었고, 내가 노처녀라는 생각도 전혀 안했어요.”¹⁸⁾

미국에 도착하여 장차 조국을 위해 기여하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중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¹⁹⁾ 요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는 중에 6.25전쟁이 터졌다. 외국에서 겪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민족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⁰⁾

“미국에 있는 동안 6.25동란이 터졌어요. 그 일도 내게는 민족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 연일 신문, 잡지, TV, 영화에서 가난한 피난 행렬, 죽어가는 고아들... 전쟁 상황이 보도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으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 민족의 못난 면만을 이리저리 까발리면서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피 흘리는가에만 초점을 맞춰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통일의 희망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완전히 민족이 분단됐구나 생각했어요.”²¹⁾

이효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 속에서 공부할 의욕을 잃었다. 유학생생활에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짐을 싸서 귀국할 생각도 했으나 아버지가 보낸 격려의 편지를 읽고 다시 마음을 잡았다. 아버지는 딸에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

18) 이효재·이승희, 윗글, 241쪽.

19) 이효재는 1970년대에 쓴 글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여자대학 졸업생들 중에 진정 그들이 전공하고 싶은 전문분야의 유학을 목적으로, 그리고 장차 통일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문분야의 실력을 닦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지를 가지고 유학을 떠나는 여성들이 정말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효재, “분단시대의 여성문제”,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284쪽.

20) 이효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유학 중 한국전쟁을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민족 문제에 대한 절실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임영일, “여성해방의 길에 놓인 큰 디딤돌”, 『사회와 사상』, 5호(1990), 348쪽.

21) 이효재·이승희, 윗글, 242쪽.

려보다 학문에 전력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굳은 신앙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서양 문물을 배우고 전문지식을 얻는 교육을 많이 받아 후진적인 우리 사회를 위해 큰 일꾼이 되라는 당부를 하셨다.”²²⁾ 다시 뜻을 세우고 공부를 계속하여 앨라배마대학에서 사회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방법과 통계분석 위주의 사회학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기독교 계통에서 일할 생각으로 1953년 버지니아주에 있는 신학교 Presbyterian School for Christian Education로 가서 2년 동안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다. 그러다가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미국여성들을 보면서 뜻한 바 있어 1955년 뉴욕의 콜롬비아대학으로 가서 사회학 공부를 계속했다.

“종교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 (...) 그러면 내가 다시 사회학을 다시 해야겠다. 사회를 알아야 되고. 여성이 이제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사회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²³⁾

콜롬비아대학에서 사회학 석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사회조사방법과 사회계층론, 근대화와 가족 등의 강의를 들었고 조선조 사회에서의 신분이동에 관한 논문을 썼다. 그리고 1957년 가을 곧바로 귀국했다.²⁴⁾ 당시에는 “석사학위만으로도 강단에 서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일념”이었기 때문이다.²⁵⁾

“내가 논문도 빨리 이제 마치고 그래 내가 돌아오려고 하니까 내 동생은 (...) 지금 모두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떠나고 가도 할 일이 없을 텐데 왜 가느냐. 그리고 말리는 거야. 말렸는데도 나는 마음이 급했지. 마음이 급해서 ‘어쨌든 빨리 가야

22) 이효재, 『아버지 이약신 목사』(정우사, 2006), 205쪽.

23)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녹취록”,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2015), 14쪽.

24) 석사학위 논문은 귀국 이후 곧바로 발표했다. Lee, Hyo-Chai, “A Study of Social Mobility in the Yi Dynasty of Korea, In the Light of the Functional and Value Theories of Social Stratification”, 『문리대학보』(서울대학교), 6권 2호(1958), 43-53쪽.

25) 강인순, 윗글, 11쪽. 이효재는 1979년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여자대학 졸업생들 중에 진정 그들이 전공하고 싶은 전문분야의 실력을 닦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지를 가지고 유학을 떠나는 여성들이 정말 몇 사람이나 되는 것일까. 유학의 기회가 궁극적으로 도피미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물었다.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284쪽.

지' 하는 생각에서 내가 이제 박사학위까지 하고 오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오래 걸릴테고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²⁶⁾

이효재는 6.25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마음의 부채의식과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서둘러 귀국했다.²⁷⁾ 해방 이후 미국 유학 첫 세대 사회학자였던 이효재는 1958년 선배 사회학자 고헌경과 함께 이화여자대학교에 사회학과를 창설했다.²⁸⁾ 그러다가 고헌경이 중심이 되어 새로 개교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무렵 이효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회학자로서의 역할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4·19, 5·16을 거치면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도시화로 인한 산업노동자 문제와 빈민문제가 심각했어요. 한강변, 청계천변에 사는 빈민들을 전부 성남시로 강제 이주시키고 한양대학 뒤의 몇 만 세대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빈민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노동자 문제, 빈민층 문제, 정치문제 같은 것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현실에서 가족 연구나 하고 미국 사회학이나 가르치고 있었으니, 도대체가 불만스럽고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회학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도 지겹고 나로서도 메아리 없는 가르침이었지요. 그래서 이 학문이 우리 사회에 맞는 학문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떤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가르쳐야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²⁹⁾

그런 고민 끝에 이효재는 서울여자대학교를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으로 두

26)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녹취록”, 15쪽.

27) 이효재는 9년 동안의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미국과 한국의 심한 격차 때문에 “서양 선교사가 남의 나라 땅을 밟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이효재·이승희, 윗글 245쪽). 김정인에 따르면 “선생은 기독교 집안 출신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다른 지식인들처럼 선민의식으로 열등감을 극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둡기만 한 역사와 현실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김정인, “한국 여성학의 선구자 이효재 선생님 인터뷰: ‘이제 서울. 그들만의 잔치에 관심 없어요’”, 『월간 참여사회』, 110호(2006년 1월호), 10쪽.

28) 이효재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1957년 가을 학기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강사 자격으로 사회심리학을 가르쳤다. 첫해에 강의실에서 만난 학생들이 강신표, 김경동, 한완상, 임희섭 등이었고 이들보다 후배인 김진균, 이동원, 김재은 등에게도 사회심리학을 가르쳤다. 이효재, “앞서 떠나신 김 선생에게 보내는 편지”, 『벗으로 스승으로』(문화과학사, 2005), 138-139쪽.

29) 이효재·이승희 윗글, 246쪽.

번째 유학을 떠났다.³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효재는 다시 실망하게 된다. “아카데미즘에 푹 빠져서 미세하고 세밀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미국사회학의 보수주의 분위기에 실망하여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귀국하게 된다.³¹⁾ 이후 이효재는 이화여대 사회학과로 돌아와 연구와 교육에 몰두했다.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지배한 한국사회에서 이효재는 “여자대학에 있었기에 교수라는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³²⁾ 1969년에는 이화여대 안에 여성자원개발연구소를 설립했고 1970-1971년에는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효재는 점차 독재권력과 분단현실을 비판하는 ‘공적 지식인’ public intellectual으로 활동하게 된다. 1980년 봄에는 김대중사건에 연루되어 해직되면서 대학 밖에서 비판적 지식인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1984년 복직 이후에는 줄곧 이화여대에서 연구하고 뜻있는 제자들을 양성하다 1990년 정년으로 퇴임했다. 1991년에는 윤정옥 등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조직하여 개인적 피해의 차원에 머물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적 의제로 제기했다. 1994년에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 진해로 내려가 ‘기적의 도서관’ 건립 등 지역사회 문화운동에 헌신하며 못다한 한국 가부장제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마감했다. 삶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 북녘땅이 보이는 강원도에 가서 살고 싶다는 뜻을 피려하기도 했던 이효재는 2020년 가을 비판사회학자로서의 삶을 마감했다.

3. 미국사회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사회학의 모색

3-1. 미국 주류사회학에 대한 회의

1948년에서 1957년 사이에 이루어진 미국 유학에서 이효재는 젊은 시절 자신이 생각

30) 컬럼비아대학에서 조선시대 계층을 주제로 한 역사사회학 연구로 석사 논문을 쓴 이효재는 아마도 당시 버클리 사회학과에서 중국사회사를 전공하는 볼프강 에버하르트 Wolfgang Eberhard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을 계획이었던 듯하다.

31) 이효재·이승희 엮음, 246쪽. 당시 버클리 사회학과 교수로는 블루머, 콘하우저, 스멜서 등이 있었다. 이효재가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지 않고 그냥 귀국한 데는 미국사회학의 보수적 성격 말고 다른 개인적 이유도 있었을 법하다.

32) 이효재·이승희 엮음, 253쪽.

했던 실천지향적 학문을 배우지 못했다. 2차대전 이후 1950년대 미국 사회학은 밀스C. Wright Mills가 요약한대로 ‘추상화된 경험주의’와 ‘거대이론’이라는 양대 지주로 이루어져 있었다.³³⁾ 라자스펠트Paul Lazarsfeld로 대표되는 세밀한 연구 주제를 엄밀한 통계적 기법으로 측정하는 계량주의 사회학과 파슨스로 대표되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구조기능주의 이론은 이효재의 깊은 지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미국 주류사회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이효재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부딪치면서 미국에서 배운 사회학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적 현실을 경험하면서 미국 주류 사회학의 현실적합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된 것이다.³⁴⁾

이효재는 1957년 귀국 이후 “몰가치적 실증주의를 과학적 사회학과 동일시”하던 시대의 풍조에 따랐던 자신의 학문 초창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보수적인 미국 사회학의 실증주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소화시켜 수용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더우기 우리 근대사에 대한 지식이나 민족사적 역사의식조차 확립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5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 연구를 시작하였다.”³⁵⁾

그렇다면 이효재의 미국 주류사회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식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효재는 기독교 신앙, 민족의식, 여성의식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렇다고 이효재가 유학을 떠날 당시에 좌파적 사상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효재는 해방 이후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의 내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33) C. Wright Mills, *The Sociological Imagina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밀스는 1946년부터 1962년까지 컬럼비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가르쳤다. 이효재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 같은 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으나 이효재가 밀스의 강의를 들었다는 흔적은 없다. 밀스는 1956-1957년에 코펜하겐대학에서 가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재의 비판사회학과 밀스의 비판사회학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34) 1965년 고영복과 벌인 지상 논쟁에서 이효재는 미국사회학의 단순한 적용하기보다는 한국 현실 속의 ‘빈궁’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효재, “한국 사회학의 과제: 고영복씨의 ‘한국사회구조의 분석’을 비판함” 『사상계』, 13권 9호(1965), 238-244쪽. 고영복은 1997년 고정간첩 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전향서를 쓰면 풀어주겠노라고 했는데 자신은 고정간첩이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향서를 끝내 쓰지 않았다고 한다.” 유팔무, 『사회학으로 세상보기』(한울, 2017), 185쪽. 그렇다면 고영복이야말로 내심으로는 ‘빈궁의 사회학자’였다는 말인가?

35)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3쪽.

“나는 좌우이념이나 대립된 학생운동이나 좌우익의 정치 갈등에 혐오를 느꼈다. 보수적인 종교 교육의 영향을 받은 나는 대학생들이 계급의식을 앞세워 투쟁에 나서서 좌익사상에 별 관심이 없었다. 종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실존철학에 관심을 갖고 가까운 친구들과 실존철학 강의를 들었다.”³⁶⁾

이효재는 미국 유학 초반 앨라배마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동안 기대하던 기독교적 사회개혁에 대한 지식과 영감을 얻지 못했다.

“인류학, 가족문제, 범죄 등 초보적인 사회조사 과목만 가르쳐서 영 재미없어서 사회학에 불만과 회의를 느끼다 몸이 약해져서 2년간 폐병 요양원에서 정양도 했어요.”³⁷⁾

“1950년대에 들어서는 매카시즘이 휩쓸면서 맑시스트들은 대학에서 쫓겨나 설 땅이 없었어요. (...) 사회학에 불만과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³⁸⁾

미국 유학 중 이효재는 회의 속에서 사회학을 떠나 신학으로 갔다가 다시 사회학으로 돌아오는 지적 방향의 과정을 거쳤다.

“남장로교파 계통 신학교에 가면 신학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신학공부를 했어요. 남장로교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데 신학교 교수 한 분이 당시로서는 꽤 진보적인 입장이었어요, 역사가 예정대로 움직여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발전과 신의 계시도 진보적으로 증대되어 간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나에게는 충격이었지요. (...)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역사 발전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게 되니 다시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도 생겨나더군요.”³⁹⁾

그러나 이효재는 콜럼비아대학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다시 한 번 실망하게 된다.

36) 이효재, 『아버지 이약신 목사』(정우사, 2006), 185쪽.

37) 이효재·이승희, 윗글, 243쪽.

38) 이효재·이승희, 윗글, 243쪽.

39) 이효재·이승희, 윗글, 243쪽.

“뉴욕시에 있는 콜롬비아대학원으로 갔는데 나의 과제였던 한국사회를 민주화시키고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 이 때는 민주화의 개념도 아주 단순해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져야 민주화가 된다는 근대화론의 입장에 있었어요.”⁴⁰⁾

귀국 이후 이효재는 남성 사회학자들에 의해 이미 형성된 한국사회학계의 주도적인 분위기에 적응하는 시간을 거쳤다. 처음 발표한 “서울시 가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이라는 연구 논문은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실시한 실증적 조사연구의 결과물이었다.⁴¹⁾ 그 무렵 이효재는 고향경, 이만갑, 이해영과 함께 한국 농촌사회의 가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인구증가와 가족계획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다.⁴²⁾ 1982년에 발표한 “분단시대의 가족연구”에서 이효재는 자신의 초창기 가족사회학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솔직한 비판을 남겼다.

“한국의 도시가족을 가족사회학적인 입장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실시한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이 첫 효시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는 필자가 주동이 되어 그 당시 사회학계에 종사한 몇 분 교수들의 도움으로 계획하고 실시한 것이었다. 이 당시 필자는 장기간의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여서 분단과 전쟁으로 당한 수난과 고통의 직접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었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경험을 갖지 못했다. 더우기 가족의 실태를 연구하는 입장이 미국사회학의 깊은 영향으로 한국의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접근하는 데 주체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⁴³⁾

1960년대에 들어서 한국사회를 직접 경험하며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인식하게 된 이효재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의 현실에 뿌리내린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40) 이효재·이승희, *뒷글*, 243쪽.

41) 이효재,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논총*』 1호(1959), 9-72쪽.

42) 이효재, “이상적인 가족계획: 사회학적 입장에서” 『*형정*』(治刑협회), 10호(1961), 30-33, 38쪽; 이효재 “한국의 인구번식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이화*』, 15호(1961), 32-44쪽; Hyo-Chai Lee, “Size and Composition of Korean Families on the Basis of Two Recent Sample Studies”, *Bulletin of Korean Research Center*, No. 15(1961); Hyo-Chai Lee, “Sociological Review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Koreana Quarterly*, Vol.5, No. 1(Spring, 1963): 135-151쪽.

43)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216쪽.

“6,70년대를 통해 우리 사회 민주화의 요구와 기대는 억압당하며 좌절만이 거듭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정치발전이 주권자로 참여해야 되는 민중들의 요구는 탄압당한 채 관권에 의한 동원의 대상으로 소외되었다. 권력을 절대화시키려는 유신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력의 집중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로써 이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의 열기 속에서 민주통일의 갈구는 더욱 강렬해졌으며 분단 사회에서의 피해적 삶에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가족과 여성문제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분단국가를 유지하려는 체제로서 형성된 사회구조적 성격의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⁴⁴⁾

비판사회학자로서 이효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가족에서 시작하여 국가에 이르는 여러 수준에서 민주적 공동체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동체를 창조해야 할 역사적 과제 앞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공동체적 접근인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로의 발전을 전제 한 입장에서 일차 집단인 가족공동체를 위시하여 모든 사회조직의 구조와 기능의 비민주적 성격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⁴⁵⁾

기독교 신앙, 민족의식, 여성의식의 결합은 애초부터 그 내부에 실천적 지향성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주류사회학에 불만을 느끼던 이효재는 1970년대 억압적 권위주의 시대의 현실을 몸으로 겪으면서 분단시대의 비판사회학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에서 해직된 경험은 이효재의 비판사회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3-2. 여성의식과 실험적 여성공동체운동

이효재는 1960년대부터 한국 여성학의 기초 형성을 위한 연구를 계속했다. 그렇다면 이효재의 여성의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효재는 우리나라 첫 세대 여성학자이지만 1950년대 유학 당시 미국에서 페미니즘에 눈뜰 기회가 없었다. 미국의 본격적인 여성운동은 1960년대 후반에 가서야 등장하기 때문이다.⁴⁶⁾ 이효재의 여성의식은 일제강점기

44)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3쪽.

45) 이효재, 윗글, 4쪽.

에 싹을 키웠고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 이후 한국여성의 현실을 연구하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당시 미국사회 일반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비판적인 글은 소개된 것이 없었어요. (...) 중류 가정에서는 단란한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때만 해도 나는 노동자로서의 의식, 생산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의식보다는 가정에서의 재생산자로서의 위치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196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미국사회에서 흑인운동과 학생운동, 월남전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운동도 1960년 후반부터 일어나 1970년을 전후로 여성학이 생겨났지요. 그러니까 여성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특별하게 영향을 받은 일은 없었지요.”⁴⁷⁾

이효재는 귀국 이후 미국에서 배운 사회학이론과 사회조사방법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의 가족사회학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미국에서 배운 조사방법론이나 구조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여성을 사회변동의 주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을 찾을 수 없었다.⁴⁸⁾

“미국사회학의 조사방법은 사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는 적합했지만 이것으로는 여성들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변화시킨다거나 우리가 개혁해야 할 사회조직의 대안이라든지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았어요. 4.19와 5.16을 거치면서 노동자 문제, 빈민층 문제, 정치 문제 같은 것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연구나 하고 미국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도대체가 불만스럽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회의도 많이 들었어요.”⁴⁹⁾

46)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는 1963년에 출간되었고 여성운동단체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an(NOW)이 결성된 것은 1966년이다. Betty Fridan, *The Feminine Mystique*(New York: W. W. Norton, 1963) 이 책의 우리말 번역판으로는 베티 프리단(지음), 김행자(옮김), 『여성의 신비』(평민사, 1976) 참조. 이효재는 자신의 편저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창작과비평사, 1979)의 1부 “서양여성해방운동의 배경과 이념”에서 베티 프리단을 소개했다.

47) 이효재·이승희, 윗글, 244쪽.

48) 이효재, “고전사회학의 가족이론과 파슨스의 핵가족론”, 이효재(편),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까치, 1988), 11-32쪽

49) 이효재·이승희, 윗글, 247쪽. 버클리 사회학과와 커리큘럼 변화에 대해서는 윤영민, “최근 미국 사회학의 위기와 대응-버클리대와 워싱턴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유음), 『21세기의 한국 사회학』(문학과지성사, 1994), 69-106쪽 참조.

이효재는 지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교수 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1962년 박사 학위도 받을 겸 다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미국 동부의 오래된 대학이 아니라 서부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으로 떠났다. 비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한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버클리대학에 중국사회를 연구하는 독일 출신 사회학자가 있었다. 그러나 아카데미즘에 젖어있던 미국 사회학은 이효재의 지적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 이효재는 당시 버클리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매카시즘 선풍에서 막 벗어난 터라 맑시즘적 전통이나 사회비판적인 요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야말로 캠퍼스는 아카데미즘에 푹 빠져서 미세하고 세밀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보수주의 분위기였고, 학생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업 때문에 불만이 짝 차 있었어요.”⁵⁰⁾

그런 분위기에 실망하고 다시 귀국하여 이화여대 사회학과로 복귀했다. 그러나 두 번째 도미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 때 만난 이스라엘 유학생을 통해 신생국 이스라엘에서 건국 이후 진행된 민족통합 과정과 다양한 사회적 실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⁵¹⁾ 이효재는 수소문 끝에 1966년 이스라엘 노총의 초청을 받아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노동조합, 협동조합, 생활공동체, 군대 등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노동운동이나 노동 분야, 협동조합 분야, 그리고 또 이 여성들, 여군들, 여군들의 이제 활약이나 역할 같은 거. (...) 새로운 사회를 자기들 나름으로 이제 세워가는데 소셜 플랜에 그 이론이 있어. 이런 게 마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냥 황홀해. 그래서 내가 육십 년대에 이스라엘에 갔었잖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어, 진짜 참 그때 그냥 너무 내 나름으로 참 이럴 수도 있으나. 이렇게 인간사회가 어, 이렇게 새로운 국가사회를 계획을 하면서 건설할 수 있구나 하는데.”⁵²⁾

50) 이효재·이승희, *읽글*, 247쪽.

51)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이스라엘의 사회학을 포함한 지적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Uri Ram, *Israeli Sociology: Text in Context*(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8)을 볼 것.

52) 이재경, “이효재의 여성·가족사회학”, 한국가족문화원 1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2004), 17쪽.

이스라엘에 체류하면서 얻은 공동체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효재는 1970년 이화여대에 ‘여성자원개발연구소’를 설립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화곡동에서 실험적인 협동조합운동을 시작했다.⁵³⁾ 그곳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구매, 협동보육, 놀이터 공동관리, 지역학교 교육 참여 등을 실천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실험 실이었다. 그러나 그 실험은 1972년 유신체제의 선포 이후 정부의 탄압을 받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76년 아쉽게 막을 내리게 된다.⁵⁴⁾

3-3. 한국사회 현실과 비판의식의 심화

학문의 발전은 학자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한다. 학문공동체 구성원들이 동료들의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판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학문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냉전체제와 유교적 전통이 지속되던 1960년대 한국 사회학계에서 논쟁다운 논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65년 고영복과 이효재 사이에 이루어진 논쟁은 매우 예외적이었다.⁵⁵⁾ 고영복이 근대화이론에 사회조사 결과를 곁들여 발표한 한국사회의 근대화 방향에 대한 글을 이효재가 비판을 했고 고영복이 이에 답변하는 것으로 토론은 끝났지만 이 토론은 이효재의 사회학을 비판사회학으로 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효재는 당시 이만갑과 이해영이 주도하고 그의 제자와 후배들이 뒤따르고 있던 사회조사 위주의 사회학 연구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사회학계의 활동은 각 대학 및 정부 단체의 주최로 성행한 시사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시하여 사회학자들의 개인 연구를 위한 태도조사, 가족조사, 농촌조사, 도시조사 및 기타 여러 종류의 조사가 통계자료 수집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이 일반인들에게는 한국사회학의 눈부

53) “지역사회의 주인은 여성이다”라는 화두를 들고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지역 협동조합운동은 1972년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중단되었지만 1980년대 ‘여성민우회’의 생활협동조합운동으로 이어진다. 강인순, *윷글*, 13-14쪽.

54) 이효재는 이후에도 공동체운동에 관심을 기울여 1990년에는 미국 동부지역의 꼬문과 스페인 꼬문의 몬드라곤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가족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55) 고영복, “한국사회 구조의 분석”, 『신동아』 1965년 2월호; 이효재, “한국사회학의 과제- 고영복씨의 ‘한국사회구조분석’을 비판함”, 『사상계』, 1965년 8월호; 고영복, “한국사회구조의 분석 재론- 이효재씨의 반론에 답함”, 『동아일보』, 1965년 8월 5일자. 이 세 편의 글은 손세일(편), 『한국논쟁사 4- 사회·교육편』(청람출판사, 1976), 23-75쪽에 재수록되었다.

신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그리고 사실상 한국사회를 단편적으로나마 기술하는 기초 숫자자료를 많이 축적해온 데 대하여 사회학 연구에 종사하는 우리들로서 스스로 축하해야 할 일인 줄 안다. 그러나 한국사회학을 한 체계적 학문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는 심각한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비판적이며 이론적 뒷받침이 있는 개념체계의 결핍과 수집한 자료에 대한 무책임한 해석에 염려와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⁵⁶⁾

1960년대 한국 사회학자들이 수행한 이론적·개념적 뒷받침 없는 피상적 수준의 사회 조사에 회의를 표명한 이효재는 심층적 사례연구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부정부패야말로 모든 한국 기관에 공통된 현상으로서 몇 개의 기관을 선택하여 분석하면 한국적 부정·부패의 성격이 한 유형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았다.⁵⁷⁾ 이효재는 당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원인을 “우리 역사상 긴 세월 동안 계속되어온 빈궁 상태”에서 찾으려 한국사회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러므로 나는 빈궁(을) 우리 사회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선행적 요인으로 보며 따라서 우리 한국의 사회학을 빈궁의 사회학이라고 부르고 싶다.”⁵⁸⁾

이후 이효재는 1982년에 발표한 “분단시대의 가족연구”에서 분단과 산업화 과정에서 지리적 이동과 직업이동을 겪으며 온갖 수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러한 통계적 현상의 이면에 숨겨지고 아직도 파헤쳐지지 않은 가족적 삶의 처절한 수난의 경험들은 이 시대 가족연구가 접근 하지 않은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파악되기까지는 한국 가족이 지닌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⁵⁹⁾

56) 이효재, “한국사회학의 과제- 고영복씨의 ‘한국사회구조분석’을 비판함” 『사상계』, 1965년 8월호, 238쪽. 이효재는 노창섭 등이 공저한 『개발과정에 있는 농촌사회연구』(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65)에 대한 서평에서 이 책이 “농촌개발 과정을 충분히 분석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쓰기도 했다. Hyo-Chai Lee, “Book Review: ‘A Study of Three Developing Rural Communities’ by Roh Chang-Sub”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Korea Research Center), No. 23(December, 1965), 48쪽.

57) 이효재, 윗글, 242쪽.

58) 이효재, 윗글, 244쪽.

이후 이효재는 사례연구, 현장연구, 역사적 접근, 문학사회학 접근 등 양적 연구방법과 통계적 분석을 보완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모색했다.⁶⁰⁾

이효재는 사회학자의 정책 형성 과정 참여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주류 사회학자들은 인구학적 연구를 통해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 형성에 협력하고 있었다. 이효재도 1960년대 중반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개발위원회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효재는 이내 정부가 만든 제도 속에 들어가 정부의 정책 수립을 돕기 위한 사회학자의 참여가 갖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개발의 개념 설정과 방향 제시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문제까지 침투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다만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이 당면과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기본 조사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실시를 허락하지 않고 행정기구에 종속적인 관계의 영향 속에서 움직여야하므로 소정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⁶¹⁾

이효재가 볼 때 정부의 지원과 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연구는 “사회발전을 위한 뚜렷한 목적 지향성과 이론적 방향의 인식의 토대 위에 서지 못했고 애매하고 피상적인 이론적 전제하에서 산발적이고 단면적인 연구를 안일하게 해왔을 뿐이다.”⁶²⁾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적 억압이 강화되던 시기였다. 분단 상황의 지속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고 대중들을 정치권력에 순응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1971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자살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밑으로부터의 노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효재는 동일방직, YH, 원풍모방 등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벌이는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유신체제의 억압이 더욱 강화되는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효재는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바탕을 둔 사회학의 필요성을 더욱 강력하게 느꼈다.⁶³⁾ 유신체제 말기인 1979년 『창작과 비평』 봄 호에 발표한

59) 이효재, “분단시대의 가족연구”, 『분단시대의 사회학』, 215쪽.

60) 이효재, 윗글, 19-20쪽.

61) 이효재, “체계 없는 ‘상식’의 단계 너머: 사회학, 한국사회과학의 시련” 『정경연구』, 45호(1968년 1월호), 145쪽.

62) 이효재, 윗글, 같은 쪽.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그런 과정에서 심화된 비판의식의 표현이었다.⁶⁴⁾

3-4. 흑인사회학이 준 충격과 가치개입의 사회학

1970년대 중반 이후 유신체제 하에서 한국의 체제 비판적 지식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민중론’을 전개했다. 서남동, 안병무, 김용복 등의 민중신학, 김지하, 조세희, 황석영, 백낙청, 염무웅 등의 민중문학, 박현채, 변형윤, 정윤희, 유인호 등의 민중경제학, 강만길, 김용섭 등으로 대표되는 민중사학, 한완상 등의 민중사회학은 ‘민주’에서 시작하여 ‘민중’과 ‘민족’을 강조하는 지적 흐름을 형성했다. 이효재의 분단시대의 사회학도 크게 보면 민중론이라는 비판적 한국사회 인식의 큰 흐름에 속한다.⁶⁵⁾ 이효재는 사회학의 역할을 인간해방으로 설정하고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한 ‘분단시대의 사회학’을 제창했다.⁶⁶⁾ 1970년대 후반에는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 분단 상황이 민주화운동에 강력한 걸림돌이 된다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이효재의 분단시대의 사회학도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지만 분단시대의 사회학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보다 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흑인사회학Black Sociology과의 만남이었다. 1974년 이효재는 미국 남부의 흑인대학인 피스크대학Fisk University에서 흑인사회학과 만났다. 그때 받은 인식론적 충격이 ‘분단시대의 사회학’을 제창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⁶⁷⁾

63) 이효재는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서 “체제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구조기능주의가 한국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강인순, 윗글, 6쪽.

64)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14권 1호(1979년 봄호), 250-268쪽. 이 글은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11-33쪽에 다시 실렸다.

65) 민중론에 대해서는 정수복,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민중론”, 『의미세계와 사회운동』(민영사, 1994) 101-130쪽. 참조 이효재의 화답을 기념하여 나온 『분단시대와 한국사회』(까치, 1985)에는 변형윤, 박현채, 송건호, 백낙청, 김진균, 박순경, 김용복, 최장집 등 당시 각 분야에서 민중론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기고했다.

66) 강인순, 윗글, 8쪽.

67) 1866년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에서 개교한 피스크 대학의 졸업생으로는 흑인사회학을 개척한 두보이스W.E.B. Du Bois가 있다. 시카고학파를 만든 로버트 파크Robert Park가 이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했다. Wikipedia, “Fisk University” 항목 참조. 하버드대학에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두보이스는 애틀란타대학 교수로 인종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로 미국 사회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워드, 섬너, 스몰, 기딩스를 미국사회학의 네 명의 창건자라고 하지만 두보이스도 그들 못지않게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두보이스를 중심으로 미국사회학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Aldon Morris, *The Scholar Denied: W.E.B. Du Bois and the Birth of Modern Sociology*(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를 볼 것.

“피스크대학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흑인대학에 교환교수를 자청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한 학기 있으면서 흑인 가족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대학 사회학자들은) ‘흑인사회학은 인종해방을 위한 사회학이다’라고 과감하게 주장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어요. 제3세계적인 시각도 얻게 되었고 그전까지는 재생산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공동체적인 사회개혁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흑인사회학을 알고 나서부터는 민족해방과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사회학이라는 사상을 갖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분단과 사회학을 연결 지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고 봅니다.”⁶⁸⁾

가치중립과 과학적 객관성을 내세운 아카데미 사회학에 대해 회의하고 있던 이효재는 피스크대학에서 인종해방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가진 흑인사회학을 접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⁶⁹⁾ 이효재가 볼 때 흑인사회학Black Sociology은 “사회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백인사회학White Sociology’이 지닌 편견에 대한 거부와 반동이며, 압박과 빈곤에 시달려온 미국 흑인사회의 특이한 경험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의 새로운 정의와 이론의 정립을 꾀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⁷⁰⁾ “백인사회학이 흑인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지배층의 사회학이라면, 흑인사회학은 이로부터 해방하려는 해방의 과학이다.”⁷¹⁾

앞에서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이효재는 흑인사회학을 만나기 전부터 가치중립과 객관성을 내세우는 실증주의 사회학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1968년에 발표한 글에서 이효재는 바람직한 전체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없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things as they are을 서술하는 몰가치적 사회학 연구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
- 68) 이효재·이승희, ʼ잊글, 248쪽. 미국사회학 초창기 여자대학과 흑인대학에서 이루어진 사회학 연구와 교육에 대해서는 Vicky M. MacLean and Joyce E. Williams, “Sociology at Women’s and Black Colleges, 1880-1940”, in Anthony J. Blasi(ed.), *Diverse Histories of American Sociology*(Leiden: Brill, 2005), 260-316쪽 참조.
- 69) 흑인사회학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Watson, Wilbur, 1974, “The Idea of Black Sociology” *The American Sociologist*, Vol. 11, No. 2(May 1976): pp. 115-123 참조.
- 70) 이효재, “흑인사회학Black Sociology의 대두”, 『한국사회학』 7호(1974), 71쪽. 강인순, ʼ잊글, 14쪽. Joyce Ladner(ed.) *The Death of White Sociology*(New York: Random House, 1973)도 볼 것.
- 71) 이효재, ʼ잊글, 71쪽. 이 인용문은 이효재가 Robert Staples, “What is Black Sociology?: Toward a Sociology of Black Liberation?”에서 인용한 것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일부 미국 사회학자들의 영향으로 그들의 과학적 중립성을 지키는 입장에서 사회변화의 가치관적 및 목적지향적인 측면을 외면해왔다. 이러한 이론적 인식과 소극적 태도로서 사회변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체의 법칙에 따라 변화된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며 파악하는 기능을 고수하였던 것이다.”⁷²⁾

가치중립적 사회학을 회의하던 이효재는 흑인사회학을 접하면서 사회과학에서 가치중립성 유지는 불가능하며 ‘과학’으로서의 사회학 그 자체가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이효재는 자신의 사회학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사회학이 되어야 한다는 뚜렷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⁷³⁾ 학문적 탐구와 윤리적 가치판단을 연결시키는 ‘가치개입의 사회학’, ‘진보적 비판사회학’의 입장을 선명하게 취하게 된 것이다.⁷⁴⁾ 훗날 이효재는 사회학자로서 자신의 학자 생활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보수적인 미국사회학의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소화시켜 수용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이 우리 근대사에 대한 지식이나 민족사적 역사의식조차 확립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5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 연구를 시작하였다. 단지 부계 혈통 계승에 기반을 둔 가부장제와 왕권 중심의 신분제 사회의 유산인 지배·복종의 위계질서를 극복하며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사회로의 발전을 갈망하는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물가치적 실증주의를 과학적 사회학과 동일시하려는 그 시대적 풍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가족의 민주화와 여권의 평등화를 전제한 가치 지향적 입장에서 가족과 여성에 대한 연구를 일관해 왔다. 이것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자유민주주의를 실천시키는 명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단순한 희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60-70년대를 통해 우리 사회 민주화의 요구와 기대는 억압당하며 좌절만이 거듭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정치 발전에 주권자로서 참여해야 하는 민중들의 요구는 탄압당

72) 이효재, “체계 없는 ‘상식’의 단계 너머: 사회학, 한국사회과학의 시련”, 『정경연구』, 45호(1968년 1월호), 145쪽.

73) 강인순, 원글, 14쪽과 19쪽. 이효재의 이런 입장은 다음 글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A. Alkalmat and Gerald McWhoter, “The Ideology of Black Social Science”, *Black Scholar*, Vol.1 No.2(December, 1969), 28-35쪽.

74) 이재경, “이효재, 우리 여성학의 시작: 한국적 특수성을 소재로 일군 우리 여성학,” 교수신문(편),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 한국의 자생이론 20』(생각의나무, 2003), 324쪽.

한 채 관권에 의한 동원의 대상으로 소외되었다. 권력을 절대화시키려는 유신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력의 집중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⁷⁵⁾

이효재는 자신의 연구에 “미국의 기능주의적 측면들이 너무나 많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내 학문은 모두 식민지성의 반영이다’라는 식으로 통렬하게 반성했다.⁷⁶⁾ 이런 학문적 자기반성 위에서 이효재는 한국사회학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한국사회학의 과제는 우리를 이 한스러운 구조적 상태에서 인간다운 삶을 구가할 수 있는 통일된 사회 즉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점차 구현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 가는데 이바지하는 지식과 실천적 방법을 제공하는 일이다. 불신이 없는, 소외된 계층이 없는, 빈부의 격차가 없는, 통일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민족적 통일 사회를 향한 점진적인 실천이기 때문이다.”⁷⁷⁾

아래에서는 이효재의 비판사회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구체적인 연구 업적을 통해 정리해본다.

4. 이효재 사회학의 전개

이효재는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라는 역사적 경험을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이론화하려고 노력한 사회학자였다. 그는 일제시대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해방 직후 대학에 입학했다가 미국에 유학한 첫 세대 사회학자에 속한다. 이효재는 다소 어색한 문체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대의 다른 남성 학자들에 비하여 많은 양의 논문과 저서를

75)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창작과비평사, 1985), 3-4쪽.

76) 이미경 인터뷰, 여성평우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편), 『여성평우회 발자취』(2003), 64-65쪽. 강남식·오장미경, 2003, “한국여성학의 발달과 서구(미국)페미니즘”, 한국학술단체협의회(편),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한울, 2003), 291쪽에서 재인용.

77)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14권 1호(1979년 봄호), 268쪽. 또는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33쪽.

발표했다.⁷⁸⁾ 그가 “그렇게 왕성하게 집필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는 그의 독신생활에 있다.

“혼인도 안했으면서 어떻게 가족문제, 여성문제를 얘기하느냐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혼인을 안했기 때문에 생활이 단출해서 연구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⁷⁹⁾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효재의 사회학을 가족사회학, 여성학, 여성노동자·농민 연구, 분단시대의 사회학, 사회사라는 다섯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⁸⁰⁾ 물론 그 다섯 개의 연구 영역은 시기별로나 주제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시대의 흐름과 문제의식의 변화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하여 전개된 것이다.⁸¹⁾

4-1. 이효재의 비판적 가족사회학

1953년 6.25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마무리된 이후 초창기 한국사회학의 중요 연구 주제는 농촌사회와 가족이었다. 1957년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효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농촌과 도시의 가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족사회학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78) 이효재 스스로 “나는 사회학적 논문이나 평론 쓰기에 길들여져 문체가 매우 딱딱한 편이다”라고 썼지만 일제시대에 교육받고 해방을 맞이한 세대는 한글로 논문을 쓰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효재, 『아버지 이익신 목사』(정우사, 2006), 21쪽. 조한혜정, 조은 등 한글로 교육받은 다음 세대 여성학자들에 와서 글쓰기는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

79) 이효재·이승희, 윗글, 255쪽.

80) 김주숙은 이효재의 30여년 학문생활을 가족연구와 여성연구로 요약하면서 계급론, 분단시대 인식, 사회사적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주숙, “책을 내면서”, 여성한국사회학회(편), 『한국가족론』(까치, 1990), vii-viii쪽. 이 책은 이효재의 이화여대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제자들과 후배 교수들이 펴낸 것이다.

81) 이효재의 제자 오한숙희는 이효재의 문제의식을 양파에 비유하여 그 첫 껍질은 분단이라는 민족 문제이고 다음 껍질은 민주화의 문제이며 세 번째 껍질은 가부장제 가족문제이고 가족문제의 핵심은 여성문제로 인식했다고 요약했다. 이효재는 “사적이고 정서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비판의식을 갖기 어려운 것이 가족인데 그 안에서 의식화가 이루어질 때 진짜 사회운동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았다.” 이효재에게서 “여성 의식화는 민주화와 직통”이다. 오한숙희, 2020년 4월 15일 인터뷰와 4월 16일 이메일. 이효재의 실천지향성은 여성의 주체적 의식화가 가족을 민주화시키고, 그렇게 민주화된 가족구성원들이 사회변동의 주체가 되어 민주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세력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내가 여자라는 것 그리고 사회의 민주화는 가정이 민주화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 사회변화 과정에서 도시가족,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더군요. (1957년 귀국 이후) 도시가족 연구를 시작했고 1959년부터는 농촌가족 연구를 했어요.”⁸²⁾

1959년에 발표한 서울시 가족에 대한 논문에서 이효재는 가족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터전을 마련하여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집단은 가족이다. 가족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적 공동생활체로서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관계의 한 제도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 존재와 사회 존속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사회생활의 한 형태이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집단의 기본적 단위를 이루고 있어 사회의 전체적 체제와 상호 관련되고 있다.”⁸³⁾

이효재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에 걸쳐 한국 가족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⁸⁴⁾ 1960년대 한국사회학계의 주요 연구 주제였던 가족계획과 인구증가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다.⁸⁵⁾ 1958년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줄곧 가족사회학 강좌를 담당한 이효재는 자신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1968년에 『가족과 사회』라는 가족사회학 교과서를 출간했고 1971년에는 『도시인의 친족관계』를 펴냈다.⁸⁶⁾ 이효재의 가족사회학은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가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여성의 삶에는

82) 이효재·이승희, 윗글, 245쪽.

83) 이효재,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논총』(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창간호(1959), 9쪽.

84) 당시 이효재가 발표한 논문으로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논총』 1호(1959); “Size and Composition of Korean Families on the Basis of Two Recent Sample Studies”, *Bulletin of Korean Research Center*, No. 15(1961); “Patterns of Change Observed in the Korean Marriage Institution”, *Bulletin of Korean Research Center*, No. 26(1967) 등을 들 수 있다.

85) 이효재, “한국의 인구변식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이화』, 15호(1961), 32-44쪽; 이효재, “이상적인 가족계획: 사회학적 입장에서” 『형정』(治刑협회), 10호(1961):30-33, 38쪽.

86) 1968년 민조사에서 처음 간행된 이효재의 저서 『가족과 사회』는 1968년 진명출판사에서 재간행된 이후 1979년에는 5판이 나왔다. 1983년, 1990년, 1993년에 경문사에서 다시 출간되었다. ‘한국연구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도시인의 친족관계』(한국연구원, 1971)는 “전근대적인 친족제도가 도시인의 의식과 행동에서 어떠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그 변화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윗글, ‘머리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가족사회학에는 처음부터 여성의 역할 변화라는 여성학적 관점이 들어있었지만 1966년 이스라엘 방문 이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이효재의 연구 관심은 더욱 분명한 실천 지향성을 담게 된다. 1970년대 초에 발표한 “도시주부생활에 관한 실태조사”(1970), “사회변화와 여성의 역할”(1971), “대학출신 여성의 취업구조와 취업의식에 관한 조사”(1971), “도시 가족문제 및 지역적 협동에 관한 연구”(1972), “도시 중류층 가정의 문제와 여성의 역할”(1973) 등 일련의 논문에는 도시 중산층 가족 여성들의 직업생활과 사회활동에 대한 이효재의 문제의식이 스며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효재의 가족사회학은 자연스럽게 여성학과 이어진다.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별 가족생활 연구에서 시작한 이효재의 가족사회학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 계층과 계급의 관점을 도입하여 도시 중산층 가족과 구별되는 노동자 계급의 가족 연구로 확장된다. 이효재는 “중류계층 가족을 상대로 연구해온 그 제한성에서 탈피하여 사회토대를 이루는 민중의 가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⁸⁷⁾

“가족사회학에서는 생존이 위협당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가족적 구성이나 공동체적 유대 또는 결혼 및 친족관계에 대한 의식상태가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지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어느 정도로 비인간적 삶을 강요하고 있는가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그들의 기본권리가 보장을 받아 가족생활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는 생존을 위해 강요당한 상태인 것이다.”⁸⁸⁾

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이효재는 기능주의 가족이론에 반대할뿐더러 가족일야말로 여성차별의 온상이기 때문에 가족 자체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보는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나 가족을 계급 재생산의 기제로만 보는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도 동의

87)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227쪽, 1980년대 후반 이후 이효재가 주축이 된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노동자 가족, 화이트칼라 가족, 자영소상인 가족, 도시빈민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맑스주의 가족론에 입각하여 가족의 계급 재생산 기능 및 노동력 재생산 기능과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이들 가족이 선택하는 가족전략, 가족 내 성불평등 상황 등”이 연구되었다. 합인회, “가족사회학 연구 60년: 연구 주제 영역의 변화와 이론적 패러다임의 교차”,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의 학술연구: 정치학·사회학』(대한민국학술원, 2008), 510쪽. 그 보기로 이효재·지은희, “한국노동자계급 가족의 생활 실태”, 『한국사회학』, 22호(1988), 69-97쪽 볼 것.

88) 이효재, “분단시대의 가족 연구”, 『분단시대의 사회학』, 219-220쪽.

하지 않았다. 그 세 가지 이론과 달리 이효재는 가족을 사회변혁의 주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사회학 이론들이 가족을 종속변수로 본 반면에 이효재는 가족이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여성학 이론에서 가족이 여성을 노예화시킨다, 혹은 가족을 없애야 된다고 해도 가족은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없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가족이 사회조직의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 형태이지요. 지금까지의 가족연구에서는 구조기능론의 입장에서도 계급론의 입장에서도 또 맑시즘의 입장에서든 가족을 여성을 착취하고 자녀를 억압하는 비민주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권위주의를 유지하는 사회조직으로만 봤어요. 계급사회에서 가족이 가부장제로 제도화, 관습화된 측면만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 남녀가 부모나 자녀, 친척이나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족이 독립변수로서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⁸⁹⁾

이효재는 가족이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을 키우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내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같은 1차적 소공동체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이나 자녀 양육권 정도의 권리만이 요구되어야 할 뿐이며 가족관계로 부터 권력관계로서의 권력관계는 배제되어야 한다.”⁹⁰⁾ 가족이 민주적 사회의 기초단위가 되려면 가족생활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관계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이효재는 가족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 “자녀들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 기르며 자율적 인격체로 양육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⁹¹⁾

1995년에 발표한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이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효재의 생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가족은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인간 공동체이다.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새롭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초 공동체이다.”⁹²⁾

89) 이효재·이승희, *읽글*, 250쪽.

90) 이효재, “분단시대의 가족연구”, 『분단시대의 사회학』, 227-228쪽.

91) 이효재,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분단시대의 사회학』, 350쪽.

92) 이효재,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1995), 12쪽.

이효재는 가족연구의 목표를 “우리 사회의 가장 원초적 조직을 이루고 있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제도적인 것으로 민주화시킴으로써 부계혈통 계승과 종족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가부장제 가족의 이념과 기능을 극복하여 민주적 가족관계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⁹³⁾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한편 양육 과정에서 자녀들의 주체성을 키워줌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이효재는 “여성운동과 공동체운동의 결합에서 사회변혁의 희망”을 보았고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를 꿈꾸고 실천했다.⁹⁴⁾ 그러나 오랜 가부장제와 친족중심주의에 뿌리내린 한국의 가족주의가 그리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혈연관계 특히 부계 중심적 친족제도에 기반을 둔 친족주의는 한국사회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관계 및 종교관에 이르기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는 친족주의가 현대 도시사회에서 완전히 약화되리라는 것은 쉽사리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⁹⁵⁾

그렇다고 이효재가 가족과 친족 중심주의를 벗어나 서구식 개인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혈연 중심의 좁은 공동체적 연대감을 보편화시켜 민족이라는 더 큰 단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개인들이 자주적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가 기대하는 바였다.

“서양사회학 이론에 의하면 도시화는 개인을 친족공동체에서 개별화시켜 합리적 계약관계를 토대로 한 보편주의적 인간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이 은연중 한국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한국사회 발전의 방향으로 기대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식 개인주의를 피하며 한국사회 전통 속에서 인간관계의 토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특수적인 혈연관계에 기반을 둔 공동체 의식을 민족사회의 기저로 보편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공동 유대 위에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된 역할이 분화되며 이에 따라 개인들 간의 자주적인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⁹⁶⁾

93) 이효재, “개정 가족법에 대한 학제적 고찰: 여성학적 고찰” 『가족학논집』(한국가족학회), 2집 (1990), 218쪽.

94) 김정인, “한국 여성학의 선구자 이효재 선생님 인터뷰: ‘이제 서울. 그들만의 잔치에 관심 없어요’”, 『월간 참여사회』, 110호(2006년 1월호), 10쪽.

95) 이효재, 『도시인의 친족관계』(한국연구원, 1971), 머리말.

96) 이효재, 윗글, 머리말.

이효재의 가족연구는 여성의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가족연구에서 이효재의 여성 의식은 부계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다. 이효재는 1971년에 펴낸 『도시인의 친족관계』에서부터 부계제(父系制)가 아니라 부모 양계제(兩係制)를 주장했다.

“부계 친족주의의 인간관계는 더욱 좁은 범위로 특수화하기 쉬우며 현대사회의 보편주의적 요청에 역행하는 것이다. (...) 부계주의적 친족은 사회를 인간화하는데 제한성을 주고 있다. 공동체의 기반을 남녀평등한 양계적(兩係的) 기반으로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친족주의의 양계화는 인간관계의 보편화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친족 유대의 폭이 넓어지고 보면 도시인으로서의 온정적 공동체를 생물학적 혈연집단뿐만이 아니라, 지연, 직연 및 공통된 취향이나 이상과 같은 요인에 기반하여 발전시킬 수 있으면서 이로서 인간가족으로서의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⁹⁷⁾

1970년대부터 부모 양계제를 주장한 이효재는 1990년대에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성 같이 쓰기 운동에 동참하여 자기 이름을 ‘이이효재’라고 표기하기도 했다.⁹⁸⁾

4-2. 이효재의 선구적 여성학 연구

1924년 출생한 이효재는 1948년 미국 유학을 떠나 1957년 귀국했다. 강고한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극히 예외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학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시절 여성은 결혼해서 가정주부로 살아가거나 독신으로 살면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이효재는 가부장제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독신의 지위를 지키며 비판적 학자의 삶을 살았다. 그는 자신의 여성의식이 형성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나는 아들을 못 낳은 자신의 처지를 ‘집안 조상의 죄인’이라고 여긴 어머니가 뒤늦게 아들을 낳고 키운 삶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이다.⁹⁹⁾ 다른 하나는 가난한 소작 집안 출신으로 부잣집에 팔려가거나

97) 이효재, 『도시인의 친족관계』(한국연구원, 1971), 216쪽.

98) 이이효재는 오한숙희에게 “최진실이 아이들의 성을 바꾸었을 때, 허수경이 비혼모를 선택했을 때,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진해 노인네 하나 있다’고 전하라고 했다. 오한숙희, 2020년 4월 16일 이메일.

99) 이효재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훗날 ‘아들 절대주의 가치관’을 가족계획, 가족법, 조상봉제사와 관련시켜 연구했다. 이효재, “한국인의 아들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 『논총』, 21호(1973), 63-72쪽.

혼인을 했다가 집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게 된 여성들이 아버지의 교회로 찾아오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본 경험이다.¹⁰⁰⁾

“그런데서 내가 참 이 한국 여성들의 처참한 삶을 어 알게 되고. 그때는 막연하게 나가(내가) 우리나라와 여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뭔지도 모르게 그저 막연하게. 내가 교육을 충분하게 교육을 받으면 어쨌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살 거, 일하고 산다는 이런 게 나한테 깊이 박혔던 건 사실이야.”¹⁰¹⁾

이효재는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지 얼마 안 된 1961년에 발표한 글에서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여성의 의식화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한국여성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란 남성들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한 것이다. 이것은 어느 사회에 못지않게 비극을 자아냈으며 아까운 재질들이 천대와 멸시 속에서 피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실이 늘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마치 인간 여성의 운명인양 즉 여자는 죄가 많아서 이러한 대우를 받고 살게끔 운명 지워진 것으로 세상을 체념하고 그것에 순응해서 살아온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여성이 깨어서 노력하고 개척해 나감으로써 우리도 인간 대접을 받을 수도 있으며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²⁾

이효재는 1965년에 쓴 글에서 여성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개성의 발전과 자아완성을 추구해야 하며 그것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범위에서 활동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의식과 활동을 전체 국가사회의 범위로 확장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아발달의 욕구는 그만큼 계속 충족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속적인 발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¹⁰³⁾

100)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녹취록”,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2015), 12쪽.

101) 이재경, 원글, 같은 쪽.

102) 이효재, “자주적 여성: 내 자신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여성”, 『새길』(법무부 행정부) 88호(1961), 50쪽.

103) 이효재, “여성의 사회진출: 안방살림에서 사회 전역으로”, 『사상계』, 13권 11호(1965), 217쪽.

미국으로부터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물결이 밀려오기 훨씬 전인 1962년에 발표한 글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만들기보다는 상호보완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의 인간학적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면 남녀가 지닌 능력 및 인성에는 마땅히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지닌 특수성을 열등한 것으로 오해하는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 여성의 특수성은 남성에게 예속되어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의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주부 노릇을 하는 것만이 여성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며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여성의 특성을 살려 남성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는 것이다. 그 특성을 일반적으로 감정의 섬세하고 예민한 점과 모성애적 희생적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성질에 대조하여 포섭적이고 화해적인 면을 살려 사회생활의 균형을 맞추어나가는데 여성으로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¹⁰⁴⁾

이효재의 여성사회학은 미국에서 수입한 학문이 아니라 이효재 자신의 삶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다. 이효재는 1950년대 후반 여성이 학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던 시기에 사회학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린 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의식을 키웠다. 그는 자신의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여성을 위한 앎을 일구어낸 한국 여성학의 개척자였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발표한 논문들은 오늘날 여성학이나 여성사회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선구적으로 논의하고 있다.¹⁰⁵⁾ 1970년 이효재는 여대생들을 향해 가정생활에 매몰되지 말고 직업생활과 사회활동을 병행하라고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그들의 일생을 결혼과 가정생활의 테두리에서만 꾸려나갈 것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서 그들의 소질을 살리며 단체활동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좁은 가정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 큰 사회를 활동의 영역으로 삼아 일생을 건설적으로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¹⁰⁶⁾

104) 이효재 “여성과 지도자”, 『기독교사상』, 6권 1호(1962), 67쪽.

105) 이재경, “이효재의 여성·가족사회학”, 한국가족문화원 1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2004), 3쪽.

106) 이효재, “미래대학의 사회적 요청”, 『학생생활연구』(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4호(1979), 80쪽.

이효재는 1960년대 말부터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 『논총』에 여성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그 가운데 가정주부들의 지역사회 참여실태를 연구한 논문에서 여성들의 가정 밖 활동이 증가했지만 그들 가운데 사회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가정 밖 활동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가정생활과 개인적인 사회생활을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인 것이다. 사회단체 활동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클럽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요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직업적 진출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시한 바도 없다. 그들은 자녀의 성공과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족생활 그리고 원만한 부부생활에 대한 희망과 요구에 치중하여 자신들의 인간현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¹⁰⁷⁾

그런 실태 확인 위에서 이효재는 “여성단체들은 주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잠재적인 참여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접근을 기도해야 하는 한편 또한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대다수를 상대로 사회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라는 여성단체의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¹⁰⁸⁾ 이효재가 바라는 여성단체 활동의 기본 방향은 여성들이 한국사회를 민주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여성들의 자주적인 사회참여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이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주적 존재로 거듭나서 평등한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해야만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다.”¹⁰⁹⁾

이효재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1970년에 이화여대 안에 ‘여성자원개발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교 밖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화곡동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여성들이 공동구배, 협동보육, 놀이터 공동관리, 지역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실천지향적 활동을 실험했다.¹¹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실험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움직임을 탄압한 유

107) 이효재·정충량, “도시 주부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논총』, 16호(1970), 282쪽(쪽 수 확인할 것).

108) 이효재·정충량, “도시 주부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논총』, 16호(1970), 282쪽.

109) 이효재, 『조선조 가족과 사회-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한울, 2003), 10쪽.

110) 이효재의 제자 강인순은 이효재가 1970년대 초중반 수업 시간에 강조한 “지역사회의 주인은 여성이다”라는 말을 듣고 여성의 주체성과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강인순, “나의 비판사회학: 월영별곡”, 『경제와 사회』, 125호(2020), 463쪽.

신체제의 수립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다.

유신체제 하에서 이효재의 여성의식은 두 번의 계기를 통해 더욱 분명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먼저 1974년 피스크대학에 접하게 된 흑인사회학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피스크대학은 미국사회의 동화정책을 거부한 채 인종간 분리교육을 선택하고 오로지 흑인 학생만을 교육하고 있었다.¹¹¹⁾ 이효재는 “기회의 평등을 근거로 한 어설픈 ‘통합’보다는 흑인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등 시민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모색하는 ‘흑인학’ Black Studies’으로부터 지적 자극을 받아 남성사회에 어설픈 통합되는 것보다는 여성들만의 주체적 단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¹¹²⁾ 그후 1975년 멕시코에서 열린 제1차 세계여성대회에 참석하여 서구와는 구별되는 제3세계 여성운동과 여성해방론을 만나면서 자신의 여성의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었다.¹¹³⁾ 멕시코 세계여성대회는 평등, 발전, 평화라는 주제로 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면서 이효재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성운동의 흐름과 방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¹⁴⁾ 피스크대학 체험과 멕시코 세계여성대회 체험은 이효재가 “한국사회에서 이등 시민의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을 위해 여성학 Women’s Studies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¹¹⁵⁾ 이효재의 여성 주체의식은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여성학이 도입되는 시기를 맞이해 한국의 여성사회학으로 받아들였다.¹¹⁶⁾ 1975년 이효재는 현영학, 정세화,

111) 피스크 대학의 흑인사회학에 대해서는 Stanley H. Smith, “Sociological Research and Fisk University”, in James Blackwell and Morris Janowitz(ed), *Black Sociologists :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164-180쪽 참조.

112) 이재경, “한국사회학에서의 여성연구” 조대엽, 신광영 외, 『한국사회학의 미래: 사회학의 위기진단과 미래전망』(나남, 2015), 358쪽.

113) 이효재는 이미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차 유엔 인간환경회의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효재, “나와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30년 편찬위원회(편), 『한국여성연구원 30년: 1977-2007』(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306-307쪽. 이후 이효재의 제3세계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은 제자들하고 함께 펴낸 여성평우회(편), 『제3세계 여성노동』(창작과비평, 1985)으로 표현되었다.

114) 문소정, “이효재 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 『가족과 문화』 16집 2호(2004), 177쪽.

115) 이재경, 윗글, 358-359쪽.

116) 유엔이 ‘여성의 해’로 정한 1975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교양과목 설치를 위한 교과과정 개발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76년 정의숙과 조정호의 번역으로 케이트 밀레트의 『성의 정치학』(현대사상사)이 출간되었으며 1977년 여성학을 전교생 대상 교양과목으로 개설했다. 이효재는 1977년 사회학과에 여성사회학을 개설했다.

이남덕 등과 함께 이화여대에 여성학 과정 개설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했다.¹¹⁷⁾ 1976년 가을학기에는 사회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사회학’ 과목을 개설했고 김주숙과 공저로 『한국 여성의 지위』를 출간했다. 1977년에는 여성자원개발연구소를 폐지하고 ‘한국여성연구소’를 만들었으며 사회학 이외에 법학, 정치학, 문학, 경제학, 심리학과 전공 교수들의 강의와 조별 토론으로 이어지는 팀티칭 방식으로 여성학 과목을 개설했다.¹¹⁸⁾

1982년에는 이화여대 대학원에 여성학과 설립을 지원하면서 한국여성학의 제도화에 기여했다.¹¹⁹⁾

1977년에 발간된 한국 최초의 여성학 교재인 『女性學新論』에 기고한 글에서 이효재는 “정치·경제·가족 구조상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요인을 이해하여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여성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했다.¹²⁰⁾ 이효재의 여성연구는 여대생, 중산층 주부, 농촌여성, 여성노동자, 성매매여성, 분단시대의 여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그의 여성사회학은 유교적 가부장제라는 문화전통,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 6.25전쟁과 분단체제의 지속, 억압적 국가권력 등이 이중 삼중으로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남녀 불평등을 유지시키고 있음을 드러내고 여성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가족을 민주화시키고 사회를 민주화시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는 지식과 실천적 방법을 모색했다.

117) 현영학, 정세화, 이남덕, 이효재, 1976,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학 과정 설치의 제안”,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8호: 377-390쪽.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서로 차이가 나는 워싱턴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와 미시간주립대학교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여성학 과목을 참고하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여성학 교과목을 제안했다.

118) 이재경, 윗글, 359쪽. 1977년 여성학 강의를 보완하는 조별 토론의 조교는 이미경, 지은희, 이계경, 이경숙, 이옥경 등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女性學新論』(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77). 교재 집필에는 이효재를 비롯하여 김영정, 정의숙, 윤후정, 현영학, 서광선, 이동원, 조형 등이 참여했다. 이 책은 1979년 『여성학』으로 제목을 바꾸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되었다.

119) 1984년에 한국여성학회가 만들어져 한국 여성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초대 회장은 윤후정이었다.

120) 이효재, “여성과 사회구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女性學新論』,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77), 64-87쪽.

4-3. 이효재의 여성 노동자·농민 연구

1966년 이스라엘 공동체 방문과 1974년 미국 흑인사회학과와의 만남이 준 학문적 충격에 이어 1978년 이효재는 자신의 학문생활에서 세 번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국 여성 노동운동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이효재는 인천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73년 식민지 시대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연구를 발표한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¹²¹⁾

“70년대 초의 전태일, 그리고 인천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나에게 큰 자극이 되었어요. 조화순 목사 등도 대략 이 무렵에 만났는데 당시 나는 직접 노동운동에 관여한다든가 그것을 내 학문세계로 안아 들이지 못했지만 여기에 촉발받은 것이 바로 식민지 시대 여성운동,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운동에 대한 연구들이었지요.”¹²²⁾

이효재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이화여대에서 강제 해직된 이후 분단현실에 대한 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노동자, 도시빈민, 농민들로 구성되는 민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해직교수 생활은 비판적 사회의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간이었다. 1984년 복직 이후 여성노동자 연구를 본격화했다. 여성노동자 연구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노동에서 시작하여 식민지시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1985년에 발표한 “한국 여성 노동사 연구 서설-조선사회와 여성노동”은 “조선 경제생활의 근간이었던 면업생산을 여성이 전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조선사회에서 여성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 논문은 당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의 역할, 여성노동의 중요성, 국가적인 기여도 등에 관심이 많았던 여성사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¹²³⁾ 이효재의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는 이후

121) 이효재, 정충량, “일제하 여성근로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논총』 22호(1973), 307-344쪽

122) 임영일, 윗글, 349쪽.

123) 이효재, “한국 여성 노동사 연구 서설-조선사회와 여성노동” 『여성학논문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집(1985), 147-167쪽. 이순구,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동향”, 강영경 외(역음),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7), 129쪽.

“한국여성노동주기work cycle에 관한 연구”(1986), “한국 노동자계급 가족의 생활 실태”(1988), “The Changing Profile of Women Workers in South Korea,”(1988) 등으로 이어졌다.

이효재는 여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여성 농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77년에 발표한 농촌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에서 이효재는 농촌여성들의 가사노동과 농업생산이라는 이중의 노동 생활을 드러내면서 서구 중산층 가족의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된 기능주의적 성역할 이론이 지닌 한계를 밝히는 한편 오래된 가부장적 편견으로 인해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던 여성 농민들의 사회적 기여를 부각시켰다.¹²⁴⁾ 1970년대 후반 이효재의 농촌여성 연구는 가사노동과 농업생산, 지역사회 활동에 동원되는 농촌여성들의 과중한 노동을 비판하는 한편 여성농민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또렷이 드러냈다. 그의 여성농민 연구는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여성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만든다는 오늘날 여성학의 핵심 주제를 선구적으로 논의한 것이었다.¹²⁵⁾

4-4. 이효재의 분단시대의 사회학

1970년대에 들어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민중론을 형성한 일련의 참여지향적 학자들은 분단상황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연구하면서 분단 극복에 기여하는 학문을 모색했다. 1978년 역사학자 강만길은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에서 해방 이후의 한국사를 분단시대로 정의하고 통일 지향의 실천적 역사의식을 주장했다.¹²⁶⁾ 이효재는 강만길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1979년 봄에 “분단시대의 사회학”이란 글을 발표했다.¹²⁷⁾ 이효재는 자신이 줄곧 연구해 왔던 가족과 여성문제를 분단체제와 연결시켰다. 이후 이효재는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가족과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1985년 『분단시대의

124) 이효재, 김주숙,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논총』(1977), 30호: 323-364쪽.

125) 이재경, “이효재의 여성·가족사회학”, 한국가족문화원 1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2004), 3쪽.

126)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창작과비평, 1978) 강만길은 훗날 “시대의 현재적 상황과 흐름에 가장 민감해야 할 역사학이 아카데미즘이란 보도寶刀를 방패삼아, 상아탑이란 안가安家에 안주함으로써 현실 및 대중과의 괴리가 커지고 말았다”고 분단시대의 아카데미즘을 비판했다. 강만길, 『역사가의 시간』(창비, 2018), 12쪽. 김정인, “분단과 통일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 김경일, 김동춘, 조희연 등(공저), 『우리 안의 보편성- 학문주체화의 새로운 모색』(한울, 2006), 266-298쪽도 볼 것.

127)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14권 1호(1979년 봄호), 250-268쪽.

사회학』이란 저서로 발표했다.¹²⁸⁾ 이 책에서 이효재는 한국의 사회학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인간관계, 사회행동을 어떻게 왜곡시켰는가를 연구해야 함으로써 “민중들에게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으로 질서와 제도를 각 분야에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변화를 위한 전략과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사회학적 지식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²⁹⁾

분단시대의 사회학이라는 이효재의 문제의식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6.25전쟁 기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했던 이효재는 수난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부채의식을 지닌 채 이미 1960년대부터 분단상황이 만들어내는 분단 가족의 문제를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분단시대의 사회학의 정서적 기반을 만들어나갔다.

“육십 년대에는 참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월남한 가족들이 자기들이 곧 돌아가 또 가족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이웃집 가듯이 모두 떠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서 점점 세월이 가니까 너무너무 참 애타하고 애절하게들 가족하고 이별 이거를 모두 못 견디는 거야.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참 분단이라는 게 바로 가족을 분단시키는 거야.”¹³⁰⁾

1983년 KBS가 주관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은 그런 이효재의 문제의식과 감수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¹³¹⁾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수많은 가족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고통과 한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월남한 가족의 고통과 더불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월북한 아버지의 자녀가 자라서 쓴 일련의 ‘분단소설’들 또한 이효재가 분단이 남긴 상처와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¹³²⁾ 이렇게 남북의 분

128)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이 책은 1986년 26회 한국출판문화상을 받았다. 이 책에 실린 10편의 길고 짧은 글 가운데 6편의 글의 제목 속에 “분단시대’ 또는 ‘분단’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129)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14-15쪽.

130)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녹취록”,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2015), 18-19쪽.

131) 강인순, 윗글, 7쪽.

132) 이재경, 윗글, 19쪽. 문학작품을 사회연구의 자료로 활용한 이효재, “민족분단과 가족문제-한국 소설의 분단인식”,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231-264쪽 참조.

단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한에 대한 공감과 연민으로부터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시작되었다.

“단일 민족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살아온 한 공동체가 외세의 강압적 작용으로 분단된 만큼 개인, 가족, 이웃, 지역공동체로서 당하는 인간적 비극, 절망, 좌절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려는 노력 등 수없는 처절한 경험이 있으며 이런 사회현실이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¹³³⁾

성차별과 여성억압은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에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지만 각 사회마다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각기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효재의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서양에서 수입된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한국현실 속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학문적 실천의 일환이었다. 이효재는 서구의 관점이 아닌 우리 사회의 역사적 체험 속에서 한국여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쌓고 이를 토대로 실천지향적 학문을 전개했다.¹³⁴⁾ 그래서 이재경은 이효재의 분단시대의 여성사회학을 ‘우리 이론’이라고 평가했고, 김진균은 여성과 분단이라는 변수를 도입한 이효재의 사회학을 ‘토종이론’이라고 불렀다.¹³⁵⁾ 1979년 봄 『창작과 비평』에 발표한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그런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었다.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인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의 한과 여성 민중의 한으로부터 민중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학적 탐구이다.¹³⁶⁾ “역사적으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한을 품고 살아온 여성들이 이 분단이란 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당하는 문제, 그리고 가족이 당하는 문제,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데서” 분단시대의 사회학이 나온 것

133)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14권 1호(1979년 봄호), 256쪽 또는 『분단시대의 사회학』, 18쪽.

134) 이효재의 제자 이미경은 “선생님의 관점의 요체는 바로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죠.”라고 요약했다. 강남식·오장미경, 2003, “한국여성학의 발달과 서구(미국)페미니즘”, 한국학술단체협의회(편),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울, 2003), 291쪽에서 재인용.

135) 이재경, “이효재, 우리 여성학의 시작: 한국적 특수성을 소재로 일군 우리 여성학,” 교수신문(편),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한국의 자생이론 20』(생각의나무, 2003), 323쪽. 김진균의 인터뷰는 교수신문(편), 윗글, “인터뷰-이효재를 말한다”, 336쪽.

136) 강인순, 윗글, 1쪽.

이다.¹³⁷⁾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분단으로 인한 여성문제와 가족문제를 분단구조를 유지하는 군사정권과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시도였다.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가족과 여성문제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분단국가를 유지하려는 체제로서 형성된 사회구조적 성격의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였다.¹³⁸⁾ 이효재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분단사회의 한계성을 역이용하여 권력의 절대화를 피하며 가부장제 사회의 유산을 계승 강화함으로써 복종적이며 위계질서적인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확립하려고 하였다.”면서 분단체제를 역이용하여 형성된 남한 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개념화했다.¹³⁹⁾ 그러나 분단은 남한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에게 분단을 강요한 국제 냉전체제에 편승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남북한의 지배층은 서로 남진통일·북진통일로 위협해 왔다. 제각기의 체제를 중심으로 통일하여 지배하려는 통일 정책으로 대립해왔다. 그리하여 민중을 공포와 불신으로 사로잡아왔다.”¹⁴⁰⁾ 남북한의 적대적 공존으로 분단체제가 지속된 것이다.¹⁴¹⁾

이효재는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여성들이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분단사회는 “고도경제성장이나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기반한 봉건사회의 가족제도와 남존여비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며 사상적 대립의 굴레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상황이 여성들의 사상 및 정신상태를 유아상태로 머물게 하고 있다. 여성은 맹목적 모성애로 가족중심의 이익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정체감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¹⁴²⁾

이효재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고통과 한을 크게 ‘민중의 한’으로 설명했지만, 특히 ‘여성 민중의 한’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¹⁴³⁾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이후 여성 민중들이 한으로부터 해방되어 평등·평화의 가족공동체를 만들고 사회개혁과 통일을 지향하는 여성평화운동으로 발전했다.

137)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녹취록”,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2015), 21쪽.

138)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4쪽.

139) 이효재, “한국 사회구조의 성격”, 『분단시대의 사회학』(한길사, 1985), 146쪽과 147쪽.

140)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294쪽.

141) 박정희와 김일성이 주도한 분단체제를 ‘적대적 공범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임지현, 『적대적 공범자들』(소나무, 2005) 2부와 남북관계를 ‘적대적 공생’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완상, 『한반도는 아프다-적대적 공생의 비극』(한울아카데미, 2013) 참조.

142)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1996, 정우사), 231쪽

143) 강인순, 윗글, 7쪽.

4-5. 이효재의 가부장제의 사회사 연구

이효재가 1957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쓴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은 “조선조의 사회 이동연구: 사회계층에 관한 기능과 가치 이론에 비추어” A Study of Social Mobility in the Yi Dynasty of Korea, in the Light of the Functional and Value Theories of Social Stratification이다. 이 논문은 일종의 역사사회학 분야의 연구였다.¹⁴⁴⁾ 이효재는 이 논문에서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학 이론의 관점에서 역사 연구를 하는 작업의 유용성” usefulness of a certain kind of sociological theory in historical research 을 보여주었다.¹⁴⁵⁾ 그러니까 이효재 사회학의 원초적 관심은 역사사회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7년 귀국 이후 현지 사회조사에 참여하면서 학문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의 학문적 뿌리는 장기적 사회변동을 다루는 역사 사회학이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조선조 사회와 가족』이라는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형성과 강화에 대한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자신의 학자 생활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¹⁴⁶⁾

이효재의 논문과 저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미 1970년대에 들어서 조사연구와 더불어 역사적 접근을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 이후 한국 여성들의 교육과 사회참여, 일제 식민지 시기 이후 여성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운동, 개화기 이후 여성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들이 역사적 접근의 보기들이다.¹⁴⁷⁾ 그러나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가부장제 비판과 그 극복 방안의 모색이야말로 이효재 사회학의 중심 주제였다.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여성들의 주체성 확립이 가족의 민주화, 즉 가부장제의 극복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에서 가부장제 가족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¹⁴⁸⁾

144) 이 논문은 귀국 직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펴내는 『문리대학보』, 6권 2호(1958), 43-53쪽에 실렸다. 이 논문은 영어 번역본 자료들과 이차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회학적 개념들을 활용한 역사사회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145) Hyo-Chai Lee, “A Study of Social Mobility in the Yi Dynasty of Korea in the Light of Functional and Value Theories of Social Stratification”, 『문리대학보』, 6권 2호(1958), 53쪽. 이 글을 쓸 당시 이효재는 서울대 심리학과에서 사회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 맨 끝에 ‘심리학과 강사’라는 지위 소개가 나온다.

146) 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신분상승과 가부장제문화』(한울, 2003)

147) 이효재, “개화기 여성의 사회진출”(발행자 불명, 1972); 이효재·정충량, “일제하 여성노동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논총』 22호(1973), 307-344쪽; 이효재, “한국 여성 노동사 연구 서설-조선사회와 여성노동” 『여성학논문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집(1985), 147-167쪽; 이효재·정충량,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논총』, 14호(1969), 117-222쪽.

148) 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10쪽.

1990년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논문집에 발표한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은 그러한 지속적 관심의 표현이었다.¹⁴⁹⁾

이효재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관심은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사회의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1969년 삼선개헌이 1972년 유신체제 수립으로 이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통합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 이효재의 눈에 그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였다. 조선시대 이후 형성되고 강화된 가부장제를 비판하던 이효재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었다. 이효재는 가부장제 조직 원리가 한국사회 여러 영역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조선조 사회와 가족』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분단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가부장제 권위주의 체제’로 이론화하여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삼는 정책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가부장제 문화의 전통을 사회체제의 보수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즉 관료사회의 위계적 질서, 권위주의, 정치사회의 보스 중심적 파벌주의, 일반사회의 서열차별과 연고주의 등이 가부장적 국가 권력을 유지시키는데 가능하며 공적 사회의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가부장제에 기반한 조상숭배가 가족종교를 이루어 인간의 생사화복과 혈통계승에 관한 원시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데서 배타적인 부자중심 혈연주의와 성차별의 가치관이 집단 의식에 깊이 잠재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¹⁵⁰⁾

이효재는 최재석 등이 축적한 기존의 한국가족제도사 연구 결과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엄격한 부계중심의 가부장제의 확립이 “불과 200년 남짓 경과한 것에 비해, 가부장제 전통은 우리 삶에 뿌리 깊게 내려 집단적 의식과 공동체적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이유를 규명하게 되었다.¹⁵¹⁾ 그가 볼 때 조선사회는 가부장제와 결합한 신분제 사회였다. 조선사회의 “지배신분으로서 양반계층은 그 세습의 기반을 가부장제 혈통계승으로 정당화하고 유지”했다.¹⁵²⁾ 이효재는 양반층에서 시작

149) 이효재,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1990), 3-34쪽.

150) 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한울, 2003), 11쪽.

151) 이효재, 윗글, 같은쪽.

152) 이효재, 윗글, 17쪽.

된 가부장제 문화를 상민층을 거쳐 노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이 수용하여 조선사회의 굳건한 관습으로 정착된 역사적 과정을 연구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민과 노비층이 양반층의 가부장제 문화를 수용하고 관습화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분제 사회에서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었던 상민과 노비층이 신분제를 거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스스로를 양반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 가부장제 양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내면화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신분사회에서 민중들은 그들의 생존이 짓밟히고 가족 보존의 공동체적 삶이 위협을 당하는데서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그들은 양반 신분을 지향하며 합법·비합법적 방법과 수단을 통해 신분상승을 성취하였고, 적극적 대응으로 양반화함으로써 불평등한 신분제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들에게 양반으로서의 신분상승은 일차적으로 호적상에 기재된 직역과 신분 표시를 위조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민중들의 신분상승 지향성은 가족생활에서 양반문화를 모방하고 생활화함으로써 문공 가계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생활문화로 삼았다. 따라서 양반층의 가부장제 문화는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고 뿌리내린 것이다.”¹⁵³⁾

이효재의 가부장제에 대한 사회사 연구는 열녀와 효부에 대한 이데올로기 해체 작업으로 이어졌다. 양반층 여성을 넘어 상민과 노비층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의 가치와 정절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역사적 과정을 추적했다.¹⁵⁴⁾ 그 결과 조선사회가 신분차별과 성차별의 사회질서를 가부장제 유교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하고 일상적 실천을 강요했던 억압체제였음을 밝혔다. 이효재의 연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동학에서 나타나는 인내천, 만민평등 사상, 신분제 철폐, 재가 허용,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두루 살피고 식민지 통치 시절 가부장제의 변화를

153) 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21-22쪽.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이효재와 어긋나는 입장을 취한 이영훈도 이 점에서는 이효재와 의견을 같이 한다. 그에 따르면 “상민과 노비 신분의 하층민들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양반사회와 대립적인 그들만의 사회를 추구하기보다 양반사회와 동질의 생활문화와 신분의 취득을 지향하였다. 그러한 유교적 전환 Confucian Transformation은 20세기에 들어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20세기와 더불어 개시된 근대적 전환과 맞물려 동 세기 말까지 가속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물질주의적 성취 지향의 개성적 인간형이, 단체의 밀도가 지극히 희박한 저신뢰 사회형이 생겨났다.” 이영훈, 『한국경제사 2: 근대의 이식과 전통의 탈바꿈』(일조각, 2016), 579쪽.

154) 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한울, 2003), 12쪽.

추적했다. 그에 이어 해방 이후 민법의 제정 과정과 1958년에 제정된 가부장제 신민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1990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법이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3년에 펴낸 『조선조 사회와 가족』에 이어 2006년에 펴낸 저서 『아버지 이약신 목사』도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효재의 개인사, 가족사, 그리고 일제시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사회사 연구물로 볼 수 있다.¹⁵⁵⁾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학문적 작업을 바탕으로 이효재가 학계와 여성운동계 등에서 벌인 사회적 실천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5. 이효재의 사회적 활동

5-1. 이효재의 학맥

이효재는 학계에서 여성들의 존재가 미미했던 1950년대 후반부터 사회학자로 활동했다. 이효재 이전에 미국 유학을 한 한국 여성으로는 김활란(1899-1970)과 고험경(1909-2000)을 꼽을 수 있다.¹⁵⁶⁾ 이효재는 그들과 함께 미국 유학 출신 기독교 여성 지도자의 계보에 속한다. 김활란은 1922년 개신교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미국 오하이오의 웨슬리언대학교를 거쳐 1925년 보스턴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31년에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 *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가 되었다. 고험경은 일본 도시샤대학을 거쳐 미국 미시건대학에 유학하여 1937년 “디트로이트의 소녀 범죄자들의 계절적 분포” *Seasonal Distribution of Girl Delinquents in Detroit*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45년 이효재가 이화여자대학교 문과에 입학했을 때나 1958년 이효재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했을 때 모두 김활란은 이

155) 이효재, 『아버지 이약신 목사』(정우사, 2006)

156) 한국 여성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박에스터(김점동)이다. 그는 이화학당을 거쳐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고 1900년에 졸업한 후 귀국해서 의사로 활동했다. 1920년대는 1910년대나 1930년대에 비해 한국 여성들의 미국유학이 비교적 활발했던 시기이다. 이는 3.1운동의 여파, 다이쇼 민주주의의 영향, 미국선교재단의 지원 등에 힘입은 것이다. 식민지시기에 미국에 유학한 한국 여성은 12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정병준,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 유학과 근대경험”, 『이화사학연구』, 39집(2009), 29-99쪽.

화여대의 총장이었다. 김활란과 이효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957년 귀국한 이효재는 이미 이화여대에서 강의하고 있던 고헌경과 함께 1958년 사회학과를 창설했다. 1959년에는 고헌경, 이만갑, 이해영과 함께 한국 농촌가족에 대한 사회조사에 참여했다.¹⁵⁷⁾ 1962년 고헌경이 서울여자대학교를 설립하고 사회학과를 만들자 이효재도 서울여대 사회학과로 자리를 옮겼다. 이효재는 고헌경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1962년에 고헌경 선생님이 전문적인 여성 교육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서울여대를 만들 때 같이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 고 선생님 행정 방법이나 운영 스타일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나는 개방되고 민주화된 방식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분은 여자 육군사관학교 정도로 규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 결국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내 학문이면 어디 가서 뭐는 못할까 싶어 그만 뒀어요.”¹⁵⁸⁾

이효재는 김활란이나 고헌경으로부터 어떤 학문적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여자대학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학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우리 같은 사회에서 이화대학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전문인으로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자대학이 없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대학교수로서 사회연구자로서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¹⁵⁹⁾

이효재는 이화여대의 동료 여성학자들과 공동작업을 많이 했다. 정충량, 이동원, 김주숙, 조형 등이 그들이다. 이효재는 이화여대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까지는 뚜렷하게 활동하는 제자를 키우지 못했다. 이화여대에서 서울여대로 갔다가 다시 이화여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자 양성에 연속성이 부족했

157) 고헌경, 이효재, 이만갑, 이해영, 『한국 농촌가족의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63)는 그 조사연구의 결과이다.

158) 이효재·이승희, 1994, “나의 학문, 나의 인생: 이효재”, 『역사비평』, 24호(1994년 봄호), 253쪽.

159) 이화여대에서 이효재의 자리가 그렇게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다. 비판적 지식인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때 “한 번은 정의숙 총장이 부르더니 ‘선생님 정년퇴직할래요?’라는 거예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무사하려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이효재·이승희, 앞글, 253쪽.

고 구제舊制 박사학위도 받지 않아서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할 수 없었다.¹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들어서 이효재 주변으로 의식 있는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주로 1970년대 졸업생으로 여성한국사회연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화여대에서 학생운동하던 세대로 ‘새얼’이라는 문과대 서클 멤버들이에요.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으로 사회를 변화 시키는 데 주체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계속 연구해서 출판도 하고 여성운동의 증견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20여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고맙기도 하고 아주 흐뭇합니다.”¹⁶¹⁾

이효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제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하면서 공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불어넣었다.¹⁶²⁾ 그의 여성학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여성학자, 여성운동가, 여성부장관,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기여했다. 이효재의 제자들을 크게 보아 사회학과 제자들과 새얼 그룹 및 학생운동 출신 제자들로 구분할 수 있지만 두 그룹은 서로 중복되기도 한다. 이효재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운동 활동가로는 한명숙, 지은희, 장하진, 최영희, 신혜수, 이미경, 이경숙, 이옥경, 정강자, 김금래, 인재근, 고은광순, 김상희, 이형량, 강명순, 김희은, 오한숙희 등이 있고 사회학과 여성학 분야의 학자로는 이재경, 조순경, 강인순, 김영화, 함인희, 조주현, 김은하 등이 있다.

5-2. 이효재의 사회운동

이효재는 ‘학문을 위한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적 활동에 참여한

160) 6.25 전쟁 이후 1975년까지 계속된 구제 박사학위제도는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논문만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학위를 받는 제도였다. 이상백, 이만갑, 최재석, 신용하 등은 구제 박사학위를 받은 반면 이효재, 이해영, 김진균은 박사학위에 연연하지 않고 학문 생활을 계속했다.

161) 이효재·이승희, 윗글, 255쪽. 이효재는 이대 인문대 학생운동서클이었던 ‘새얼모임’의 지도교수였는데 이 모임에는 최영희, 이미경, 장하진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162) 이효재는 명절이나 생일 등에 제자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는 아이들을 동반하지 말고 혼자 오기를 바랐다. 제자들이 자기를 만나는 시간이 집안일에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한숙희, 2020년 4월 5일 인터뷰.

여성 지식인이었다.¹⁶³⁾ 그런 태도는 학자 생활 초기부터 잠재되어 있다가 1970년대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표출한 것이다. 이효재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던 1965년 『사상계』에 발표한 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가한 주부생활로서 허송세월한다면 그는 전체 사회의 움직임에서 절단되고 격리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사회에 적극 참여치 않는 데서 생기는 무의미한 생활의 공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아완성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육성된 풍부한 여성의 소양을 가족관계의 테두리 속에 국한시켜 발휘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회관계 속에서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소양에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의식과 활동을 전체 국가 사회의 범위로 확장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아발달의 욕구는 그만큼 계속 충족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속적인 발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는 개인과 대립되는 별개의 집단이 아니다.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생활 광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도 남성들과 함께 그 광장 속에서 책임 있는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새 시대의 요구에 여성도 응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적 요구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다.”¹⁶⁴⁾

이효재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스스로의 삶 속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했다. 학계에서는 1970년 이상백, 최문환, 이만갑, 배용광, 이해영, 황성모, 홍승직에 이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사회학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1978년에는 한국가족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비판사회학을 발전시키면서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료 후배들과 여성평우회, 여성한국사연구회, 여성민우회 등을 만들고 회장을 역임했다. “이효재에 있어서 학문과 실천은 한 몸이었다.”¹⁶⁵⁾ 그래서 한국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적 희생자라는 사실을 학문적으로 밝히는 일에 멈추지 않고 여성노동운동, 가족법개정운동, 성매매반대운동, 성폭력근절운동,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운동, 통일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지역문화운동 등 여러 영역에서 앞서서 여성들의 활동을 이끌었다. 1994년 이효재는 자신의 사회적 실천 활동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63) 제자들 사이에서 이효재의 별칭은 ‘지행합일’과 ‘감격시대’였다. 오한숙희, 2020년 4월 16일 이메일.

164) 이효재, “여성의 사회진출: 안방살림에서 사회 전역으로”, 『사상계』, 13권 11호(1965년 10월호), 217쪽.

165) 강인순, 윗글, 21쪽.

“197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조화순 목사님의 일을 존경해서 가끔 찾아가고 몰래 돈을 거두어 보내는 정도였어요. 1978년인가 전남대 송기숙 교수가 교육현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자고 해서... 서울에 있는 교수들 서명도 받아서 같은 날 광주와 서울에서 발표하자고 했는데 이 일이 들통 나는 바람에 안기부에 붙들려가 하룻저녁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 1980년 봄에도 조금 고생했지요. 5.18이 나자 주위에서는 다들 구속되고 피해다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수 성명과 지식인 성명에 참여했고 이문영 선생이 민주제도연구소를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켜 나도 여성부문 담당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김대중씨의 내란 음모와 내각 조직에 참여한 것처럼 조작 발표되었어요. (...) 반년 가까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 일로 결국 해직됐고 해직되고서는 집에서 책 쓰고 글 읽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해직교수협의회를 조직해서 활동했지, 『가족과 사회』 개정판 냈지, 글도 많이 썼지, 김진균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책도 냈지.”¹⁶⁶⁾

이효재는 일찍부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사회적 실천을 하는 여성단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969년에 실시한 24개 여성단체를 연구한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이러한 단체 활동의 상태(약체를 못 면하고 있는 실정)를 여성 생활의 요구에 비추어 고려할 때 단체활동의 일대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여성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며 단체활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¹⁶⁷⁾

이효재는 일찍부터 여성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강조했다. 1970년대에 여러 여성단체들이 지도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재정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쉽게 정치세력에 이용되는 경향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166) 이효재·이승희, 윗글, 251-252쪽. 이효재는 1980년 한완상, 김진균 등 다른 비판사회학자들과 함께 대학에서 해직되었다. 1983년에는 변형운, 김진균, 강만길 등과 함께 해직교수협회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해직교수협의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의 발판이 되었다.

167) 이효재·정충량,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논총』, 14호(1969), 118쪽.

“여성단체들은 강압적으로 집권한 박 정권의 안정과 연장을 지지하도록 강요당한 상태에서 잠재해 있는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단체의 조직적 기반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나 재정적 기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한두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지도자들 개인의 사적 관심과 조직활동의 역량에 따라 운영되며 재정을 조달했기 때문에 회원들은 수동적이었다. 지도자 중심의 조직기반과 재정적 허약성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은 흔히 정권을 지지하는 대가로 이권을 취하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다. 지도층이 정권과 야합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흔히 회원들의 불신을 사게 되었다.”¹⁶⁸⁾

1980년대 중반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이효재는 여성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여성운동단체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단체활동의 민주성은 회원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한두 사람의 지배적 역량이나 재정적 후원에 달려있지 않다. 여성단체는 권력지향적인 지도자의 개인 출세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없다. 소수로서 조직될 수도 있으며 작은 집단들의 연합조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지도자 중심이 아닌 회원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가 앞으로 민주정치로 발전하여 우리 사회에 민주제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여성단체와 같은 모든 민간단체, 즉 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이 지배권력에 의존하여 아부하는 어용단체의 고질성에서 탈피해야 한다. 권력의 개입을 거부하는 자율적 민간단체로 책임 있는 조직활동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독립적이며 자치적 입장에서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며 공명정대하게 협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¹⁶⁹⁾

이효재는 개화기 이후 과거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를 천착한 바탕 위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여성운동의 실천에 뛰어들었다.¹⁷⁰⁾ 그러나 이효재는 여성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여성운동이 민주화와 평화통일 등 전체 사회의 문제와 유리된 채 여권의식에만 머무르는 것을 경계했다.¹⁷¹⁾ 1980년대에 들어서 이효재는 여성의 권리 증진은 물론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168) 이효재,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분단시대의 사회학』, 318쪽.

169) 이효재, 윗글, 348쪽.

170) 이효재의 한국여성운동사 연구로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정우사, 1989) 참조.

171) 이효재, “분단 40년의 여성현실과 여성운동”, 『분단시대의 사회학』, 293-294쪽.

진보적 여성단체를 직접 만들고 발전시키는 일에 나서게 된다. 1982년에는 해직교수협의회 의장이 되었지만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을 한 교수들도 가부장제 문제나 여성의 한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단체를 따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자들하고는 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는 이제 가부장제 문제나 여성의 한의 문제라든지 여성이 처한 입장, 여성이 당한 이거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듣기 싫은가 봐. 내가 그런 거를. (...) 사실 내가 기대한 것이 남자들 스스로 이거를 깨달아야지 자기들도 변하고 우리사회가 변할 텐데. (...)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화 운동한 교수들도 마찬가지야. (...) 여야 간에 남자들은 여성을 아예 배제하는 입장이야.”¹⁷²⁾

1983년 이효재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여성 지식인들의 모임인 ‘여성평우회’ 창설에 앞장섰다. 1984년에는 제자들과 함께 여성한국사회연구소를 창립했다.¹⁷³⁾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의 대모 역할을 맡았다. 1987년 ‘여성평우회’가 ‘여성민우회’로 개편될 때는 한명숙, 이옥경 등 제자들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본격적인 여성운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그의 활동 동기는 늘 같았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여성의 자주적인 사회참여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여성이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에서 자주적 존재로 거듭나서 평등한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해야만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가능한 것이다.”¹⁷⁴⁾

1987년 여성민우회 창립 당시 발표된 창립선언문에는 이효재의 여성운동에 대한 오래된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172) 이재경,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분단: 이효재 구술녹취록”, 이화여자대학교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2015), 22쪽.

173) 여성한국사회연구소는 2003년 한국가족문화원으로 개칭하고 가족연구와 더불어 “민주적이고 건전한 가족관계 정착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5월 14일에는 “이효재 가족사회학의 재조명과 21세기 한국가족”이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한국가족문화원 홈페이지 참조.

174) 이효재, 『조선조 가족과 사회-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한울, 2003), 9쪽.

“우리 여성들은 사회적 노동과 가사노동의 현장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가장 참담한 피해자가 되어왔다. 여성은 생존권 위협, 임금차별, 고용차별, 불안전취업, 가사노동, 비인간적 자녀교육 환경의 굴레에 허덕여 왔고, 나아가 성폭력, 성차별 문화의 공세 앞에서 여성의 본원적인 건강한 인간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하나의 주체적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받기는커녕 여성 자신의 생존과 모성이 파괴되는 위협에 놓여있는 것이다.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이 사회의 반민주적, 반민주적 구조에 있으며 그 위에서 경쟁위주, 물질위주의 비인간적 사회가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다.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포함한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어야만 한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주사회를 향한 기로에 서 있다.”¹⁷⁵⁾

이효재는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이우정, 조화순 등과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창립했다. 1990년에는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이 되어 진보적 여성단체의 활동을 조직화하여 여성인권 증진과 양성평등 확대, 가부장제의 근거가 되는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운동,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평화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¹⁷⁶⁾ 1991년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공동대표가 되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었다.¹⁷⁷⁾ 이효재는 이 운동에 참여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정대협 활동이에요. 윤정옥 선생님이 정신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우리 세대가 당한 개인적 분노, 민족적 분노 때문에 저도 자발적으로 나섰어요.”¹⁷⁸⁾

1992년 이효재는 동료, 제자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아시아연대회의’(아

175) 여성민우회, “여성민우회 창립선언문”(1987), 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참조.

176) 가족법 개정운동에 대해서는 이효재,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분단시대의 사회학』, 325-331쪽과 이효재, “가부장제와 가족법 개정운동”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정우사, 1989), 247-257쪽, 양현아, 『한국가족법 읽기』(창비, 2012) 3부 참조.

177) 정대협의 결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5권 2호(2013), 35-52쪽 참조.

178) 이효재·이승희, 윗글, 254쪽. 정대협 형성 이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자료 수집을 시작한 윤정옥은 이효재가 없었다면 정대협 운동의 조직적 활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나영,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구술사의 정치학: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집 5호(2016), 15쪽.

시아연대회의)를 구성했다. 한국, 대만, 필리핀, 북한, 중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지의 피해자, 피해국 및 일본 등의 지지단체와 개인들로 이루어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차별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민족의 문제를 넘어 ‘전쟁과 여성 인권’이라는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 보편적 의제로 만들었다.¹⁷⁹⁾

1990년 이화여대에서 정년퇴임한 이후 1992년에는 풀뿌리 여성들의 리더십 양성을 위해 ‘여성사회교육원’을 창립해 여성운동의 지역화와 대중화를 위한 여성교육에 힘썼다. 1994년에는 서울을 떠나 고향 진해로 내려가 지역 수준에서 여성운동, 자원봉사활동, 진해 어린이들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 설립운동, 남북어린이 돕기운동, 평화통일운동을 계속했다. 1997년에는 서울에 여성한국사회연구소(후에 가족문화원으로 개칭)를 설립해서 이사장으로 활동했고 진해에 경신사회복지재단 부설 사회복지연구소를 창설하고 소장직을 맡았다. 1999년에는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2001년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후원위원회 공동회장을 맡아 여성단체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2002년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공로상을, 2005년에는 유관순상을, 2012년에는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다.¹⁸⁰⁾

6. 이효재 사회학의 비판적 계승

이효재는 일찍이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주류사회학을 공부했으나 이에 불만을 느끼고 1960년대 중반 이후 비주류 비판사회학의 길을 개척했다. 그에 대한 기존 학계의 반응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이효재의 비판사회학은 한국사회학계의 주류 입장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남성 주류 사회학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효재는 끈기있게 비주류 비판사회학의 길을 걸었다. 이효재의 비판사회학이 남긴 학문적 유산은 학문활동과 실천의 상호연관성에 대

179) 정진성, “전시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19권 2호(2003), 39-61쪽과 신기영,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 『일본비평』 15호(2016), 282-309쪽 참조.

180) 강인순은 은사 이효재가 보여준 “여성 사회학자이면서 또한 여성운동가로서의 실천적 삶은 내 삶에서 모델이 되었다”고 밝혔다. 강인순, “나의 비판사회학: 월영별곡”, 『경제와 사회』, 125호(202), 464쪽.

한 강조이다. 삶 속에서 이론을 구성하고 그 이론을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삶과 삶의 순환 과정에 대한 강조는 한국 비판사회학이 계승해야 할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¹⁸¹⁾ 아래에서는 이효재가 구성하고 실천한 비판사회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한국사회학은 이효재가 시작한 분단사회학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학자들은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편이다. 남북한 도시화를 비교한 다음 세대 사회학자 장세훈은 2017년 한국사회학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그러나 햇볕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냉전과 분단의 영향을 떼어놓고는 현대 한국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그간의 사회과학 연구는 냉전과 분단, 그리고 남북한 관계를 밑그림으로 삼아 실제 사회현실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서구의 논의를 한국사회에 덮어 씌우는데 더 매달리곤 했던 게 사실이다.”¹⁸²⁾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단사회학 연구가 더욱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와 남북한 사회의 비교연구와 남북한 차이 해소를 위해 비판사회학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¹⁸³⁾ 이효재 다음 세대 학자로 구술사 방법으로 월남민, 이산가족, 군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김귀옥과 탈북자를 중심으로 북한 여성과 청년 세대의 일상을 연구하는 김성경의 연구는 이효재의 문제의식을 잇고 있다.¹⁸⁴⁾ 분단사회

181) 2004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한국가족문화원에서는 ‘이효재 사회학 독회’를 열어 이효재의 여성학과 가족사회학 관련 논문 14편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갖기도 했다. 한국가족교육원 홈페이지 ‘연혁’ 참조.

182) 장세훈,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알트, 2017), 8쪽.

183) 분단체제와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다양한 입장의 저서로 이은숙,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강정구(역음), 『북한의 사회』(을유문화사, 1990); 강정구,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당대, 2002);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나남, 1995); 김종엽, 『분단체제와 87체제』(창작과비평사, 2017); 강진웅, 『주체의 나라 북한-북한의 국가권력과 주민들의 삶』(오월의 봄, 2018) 등을 들 수 있다.

184)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귀옥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역사비평사, 2004);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선인, 2019) 참조. 김성경, “이동하는 북한여성의 원거리 모성”, 『문화와 사회』 23호(2017년 4월), 265-309쪽과 “북한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경제와 사회』 109호(2016년 봄), 153-190쪽 참조.

학은 한국의 분단상황을 풍부하게 연구해서 한반도 현실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사회학 이론과 연구 방법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학 연구의 분야에서 보자면 미국의 최신 여성학 이론 도입에 앞장서는 여성학이 아니라 한국 현실에 뿌리내린 여성학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 비판적 여성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이효재가 추구한 여성학의 방향이 오늘 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여성학이 과연 실천성을 상실하지 않고 여성운동과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지, 한국 여성의 삶과 경험을 제대로 읽어내고 분석하는 한국적 여성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초창기 학문 도입의 주체들이 인간됨을 다해 미국 여성학의 식민성을 탈피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념적 지향성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¹⁸⁵⁾

이효재가 주장했듯이 한국의 여성학은 대학제도 안에 전문화된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는데 만족하지 말고 “한국사회의 인간화와 새로운 역사 창조에 참여하는 이념적이고 실천적 지식체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학이 지닐 수 있는 아카데미즘의 성격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여성운동과 밀접한 연대 속에서 실천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이론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¹⁸⁶⁾ 그렇지 못할 경우 여성학은 전문 연구자들 사이의 고립된 지적 활동으로 끝나버리고 여성운동은 궁극적이고 체계적인 목표 없이 그때 그때 이슈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며 부침을 반복할 것이다. “여성운동이 여성대중과 괴리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이효재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다.¹⁸⁷⁾ 한국의 여성학은 올드 페미니스트를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영 페미니스트들과 대화하면서 학문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¹⁸⁸⁾

185) 강남식·오장미경, 2003, “한국여성학의 발달과 서구(미국)페미니즘”, 한국학술단체협의회(편),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한울, 2003), 289쪽. “미국여성학은 처음부터 한국 여성학의 토착화를 위한 모색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당시 여성학 도입 및 발전의 주도자가 이효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윗글, 같은 쪽.

186) 이효재, “한국여성학과 여성운동”,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1996, 정우사), 283쪽

187) 교수신문편집부, “인터뷰-이효재를 말한다.”, 교수신문(편),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한국의 자생이론 20』(생각의나무, 2003), 336쪽

188) 미국 사회학계와 여성학계의 LGBT 연구가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 성폭력 이슈가 전체 여성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성혐오와 여성들만의 여성운동이 갖는 한계, 법적 차별이라는 운동 전략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사회학자들은 이효재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한국 가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실현 가능한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¹⁸⁹⁾ 이효재는 혈연과 혼인에 근거한 2세대 핵가족의 형태를 벗어난 여러 형태의 가족이 가능성을 모색했다. 독신자매 가족, 할머니와 손자 손녀 가족 등 혈연 가족만이 아니라, 비혈연 동반가족, 친한 여성들 몇 명이 가족을 이루고 양자를 들여 키우기는 가족, 50명 내외의 비혈연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모색했다. 지은희는 이효재가 다양한 유형의 가족제도 연구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후학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¹⁹⁰⁾

이효재의 가족 사회학에서 계승해야 할 또 하나의 기여는 가족을 사회변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효재는 가족이 전체 사회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독립변수가 되길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족을 생활단위로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 연대해서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자체가 민주화되어야 하고 가족공동체가 자율적인 변혁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나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사회 가족연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¹⁹¹⁾

“민주화운동은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실천적 과제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부부관계를 위시하여 가정에서 남녀역할이 민주적인 협동관계로 새로워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민주화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 데서 사회생활의 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¹⁹²⁾

그렇다면 가족의 민주화와 가족주의의 폐해 극복, 한국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가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이효재의 비판사회학이 후학들에게 남긴 주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재경은 이효재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189)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204쪽.

190) 교수신문편집부, “인터뷰-이효재를 말한다”, 335-336쪽

191) 이효재·이승희 엮음, 250쪽.

192) 이효재, “분단 40년의 여성현실과 여성운동”, 『분단시대의 사회학』, 303-304쪽.

질문을 추가했다.

“온정주의적 가족주의를 혈연을 초월한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가족주의의 공동체적 본질을 수용하되 혈연의식을 해체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히려 혈연 중심의 가족을 지속시키게 될 위험은 없는가? 또는 한국인의 무의식과 정서, 또는 정체성을 구성해 온 혈연의식은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¹⁹³⁾

여성의 직업 활동과 더불어 비혼 여성이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에서 이런 문제의식은 더욱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효재는 가족이 독립변수가 되고 여성이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론적 입장에 서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제 사회를 재생산하고 수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맹목적 모성’, 상품광고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는 소비자로서의 여성, 성형과 다이어트 열풍으로 나타나는 외모지상주의, 다른 사회운동에는 무관심한 좁은 범위의 여성운동 등은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과는 거리가 있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면서도 교육, 주민자치, 환경문제, 부패방지, 사회복지 강화 등 다양한 이슈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방안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¹⁹⁴⁾

다섯째, 비판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체험의 심층적 차원을 연구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의 통계자료나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수집한 양적 자료의 분석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고 사회적 유형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개인·가족·이웃·지역공동체로서 당하는 인간적 비극·절망·좌절,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려는 노력 등 수없이 처절한 경험” 또한 사회학적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때 이런 차원의 연구를 위한 심층적 연구 방법이 요구된다. “사회학은 지금까지 적용해온 양적 조사방법에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참여자로서의 객관적 이해방법, 사례 연구방법, 역사적 접근방법 및 문학사회학 방법 등의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개발”해서

193) 이재경, “이효재의 여성·가족사회학”, 한국가족문화원 10주년 학술대회 발표문(2004), 8쪽.

194) 이재경, 윗글, 8쪽.

“사회현상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¹⁹⁵⁾ 한국사회의 문화적 문법과 역사적 체험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한국인의 사회적 체험을 생생하게 잡아낼 수 있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개발하는 일은 이효재의 사회학을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업의 하나이다.

여섯째, 사회학 이론과 경험 연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효재의 생각에서 계승할 부분이 있다. 이효재는 1990년대 들어서 비판사회학이 후퇴하고 주류사회학이 다시 강화되면서 생겨난 거시이론에 대한 무관심과 미시분석에 대한 과도한 열중 현상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젊은 사람들 연구는 이론적으로 세련되고 분석적이고 날카롭고 상당히 논리적인 면이 있어서 우리 세대보다 더 심화되고 앞서 갔다고 볼 수 있지요. 반면에 너무 미세하게 파고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한다든지 이론적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편협된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 직업의 전문성이나 연구 논문에서의 세련성을 생각 안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민족문제, 특히 우리 시대에 이룩해야 하는 민족적인 과제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론도, 연구도 결국 성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¹⁹⁶⁾

이효재는 비판사회학이 미시적인 분석에 만족하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사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이론적 조망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미시적 분석력이 결합되어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판사회학이 가능하다. 이 부분 역시 한국의 비판사회학자들이 계승해야 할 지점이다. 한국의 비판사회학은 이론적으로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경험연구들을 축적하면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체계화시키는 한편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젠더문제와 세대문제를 비롯한 한국적 현실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합성이 높은 사회학적 지식을 산출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효재의 비판사회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다.

195)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19-20쪽.

196) 이효재·이승희 엮음, 257쪽.

참고문헌

□ 이효재의 저서 및 논문

- 이효재, 1958, “사회학적으로 본 가족: 서울시 가족조사의 중간보고”, 『思潮』, 1권 7호: 225-238쪽.
- 이효재, 1958, “협력과 경쟁”, 『한국평론』, 6호: 157-159쪽.
- 이효재, 1959,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호: 9-72쪽.
- 이효재, 1961, “이상적인 가족계획: 사회학적 입장에서” 『형정』(治刑협회), 10호: 30-33, 38쪽.
- 이효재, 1961, “한국의 인구변식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이화』, 15호: 32-44쪽.
- 이효재, 1961, “자주적 여성: 내 자신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여성”, 『새길』(법무부 형정부) 88호: 30-33, 38쪽.
- 이효재, 1962, “여성과 지도자”, 『기독교사상』, 6권 1호: 62-67쪽.
- 이효재·고황경·이만갑·이해영, 1963,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효재, 1965, “한국 사회학의 과제: 고영복씨의 ‘한국사회구조의 분석’을 비판함” 『사상계』, 13권 9호: 238-244쪽.
- 이효재, 1965, “여성의 사회진출: 안방살림에서 사회 전역으로”, 『사상계』, 13권 11호: 211-217쪽.
- 이효재, 1966, “변하는 여성의 역할”, 『서울여대』, 1호: 42-51쪽.
- 이효재, 1966, “이스라엘의 여성”, 『서울여대』, 1호: 180-207쪽.
- 이효재, 1967, “한국 결혼제도를 통하여 본 변동의 유형”, 『진단학보』, 31호: 177-196쪽.
- 이효재·고영복·황성모 등, 1967,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층과 리더쉽”(토론), 『국제정치논총』, 6호: 140-182쪽.
- 이효재, 1968, “체계 없는 ‘상식’의 단계 너머: 사회학, 한국사회과학의 시련” 『정경연구』, 45호(1968년 1월호): 140-146쪽.
- 이효재, 1968, 『가족과 사회』, 민조사.
- 이효재·정충량, 1969,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4호: 117-222쪽.
- 이효재, 1970, “안방생활과 어린이의 성격형성”, 『신상』 3권 1호: 9-15쪽.
- 이효재, 1970, “안방과 신앙생활”, 『신상』 3권 2호: 42-47쪽.
- 이효재, 1970, “미래대학의 사회적 요청”, 『학생생활연구』(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 4호: 77-81쪽.
- 이효재, 1970, “도시화와 여성문제”, 『복지연구』, 5호: 15-26쪽.
- 이효재·정충량, 1970, “도시 주부생활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6호:

233-286쪽.

- 이효재, 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 이효재, 1971, “영성과 선거”, 『신상』 4권1호: 9-14쪽.
- 이효재, 1971, “개화기의 여성운동” 『신상』 4권 2호: 28-32쪽.
- 이효재, 1971, “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여성문제연구』(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호: 1690-181쪽.
- 이효재·이동원, 1971, “대학출신 여성의 취업구조와 취업의식에 관한 조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8호: 273-318쪽.
- 이효재·김주숙, 1972, “도시 가족연구 및 지역적 협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9호: 331-373쪽.
- 이효재, 1972, 『개화기 여성의 사회진출』, 발행자 불명.
- 이효재, 1973, “도시중류 가정의 문제와 여성의 역할”, 『여성문제연구』(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3호: 250-266쪽.
- 이효재, 1973, “한국인의 아들에 대한 태도와 가족계획”,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1호: 63-72쪽.
- 이효재·정충량, 1973, “일제하 여성근로자 취업실태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2호: 307-344쪽
- 이효재, 1974, “흑인사회학Black Sociology의 대두”, 『한국사회학』 7호: 71-75쪽.
- 이효재, 1974, 『인간과 환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효재·이동원, 1974, “남녀대학생의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3호: 395-434쪽.
- 이효재, 1975, “이스라엘의 키브츠-새로운 공동체의 모색”, 『신학사상』, 9호: 306-331.
- 이효재·이동원, 1975, “가외家外활동여성의 출산행위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5호: 237-285쪽.
- 이효재·조형, 1976, “여성 경제활동 및 취업에 관한 연구: 1960-1970년의 추이”,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7호: 267-293쪽.
- 이효재·김주숙, 1976, 『한국 여성의 지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효재, 1977, “현대 가족사회학의 이론적 기본문제”, 효강 최문화선생 기념사업추진위원회(편), 『효강 최문화박사 추모논문집』, 효강 초문화선생 기념사업추진위원회: 409-420쪽.
- 이효재, 1977, “개신교 선교와 한국여성 개화”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송전대학교), 7권 1호: 401-427쪽.
- 이효재, 1977, “여성과 사회구조”,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편), 『女性學新論』,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64-87쪽.

- 이효재·김주숙, 1977,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0호: 323-364쪽.
- 이효재, 1978, 『여성의 사회의식』, 평민사.
- 이효재, 1979, 『여성과 사회』, 정우사.
- 이효재, 1979a, “분단시대의 사회학”, 『창작과 비평』, 14권 1호(1979년 봄호), 250-268쪽.
- 이효재, 1979b, “현대 이스라엘 이민통합과 민족국가”, 『기독교사상』, 23호: 54-62쪽.
- 이효재·박순·박민자, 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경제 및 공간 문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4호: 239-288쪽.
- 이효재, 1979, “전환기에 선 가족주의”, 『고대문화』, 19권: 43-55쪽.
- 이효재·백낙청 등, 1979, “오늘의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창작과 비평』14권 5호(52호): 2-52쪽.
- 이효재·박은경, 1981, “한국 화교 및 화교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7호.
- 이효재, 1982, “분단시대의 가족상황”, 『정경문화』, 205호: 76-94쪽.
- 이효재, 1983, “사회발전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이효재, 허석렬(공편역),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7-12쪽.
-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 이효재, 1985, 『여성의 사회의식』, 평민사.
- 이효재, 1985, “한국 여성 노동사 연구 서설-조선사회와 여성노동” 『여성학논문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집: 147-167쪽.
- 이효재, 1985,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변형운 외 지음,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275-315쪽.
- 이효재, 1986, “가부장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학』 2호: 39-44쪽.
- 이효재, 1986, “한국여성 노동주기work cycle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9호: 143-170쪽.
- 이효재, 1986, “한국 여성노동사 연구서설-조선사회와 여성노동”, 『여성학논문집』, 2호: 147-167쪽.
- 이효재, 1988, “고전사회학의 가족이론과 파슨스의 핵가족론”, 이효재(편)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11-32쪽.
- 이효재·지은희, 1988, “한국노동자계급 가족의 생활 실태”, 『한국사회학』, 22호: 69-97쪽.
- 이효재(편역), 1989,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 이효재, 1990, 『여성과 사회』, 정우사.
- 이효재, 1990, “한국 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3-34쪽.

- 이효재, 1990, “개정 가족법에 대한 학제적 고찰: 여성학적 고찰” 『가족학논집』(한국가족학회), 2집: 218-233쪽.
- 이효재, 1991, “가족의 민주화와 혼인”, 이효재 외(지음),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한나의문화: 9-16쪽.
- 이효재, 1992, “한일관계 정상화와 정신대 문제”, 『기독교사상』, 36호: 8-17쪽.
- 이효재, 1993, 『자본주의 경제와 혼인』, 또한나의문화.
- 이효재, 1994, “한국여성학과 여성운동”, 『한국여성학』, 10호: 7-17쪽.
- 이효재, 1994, “이데올로기와 가족”, 한국가족학회(편),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3-14쪽.
- 이효재, 이승희, 1994, “나의 학문, 나 인생: 이효재”, 『역사비평』, 24호: 237-257쪽.
- 이효재, 1995,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학회(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9-22쪽.
- 이효재, 1996(1989),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증보판), 정우사.
- 이효재, 1996,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7호: 160-176쪽.
- 이효재 · 이은영, 1997, “대담: 우리 시대의 사상가, 이효재”, 『여성과 사회』, 8호: 149-164쪽.
- 이효재, 1998, “한국여성운동 100년”, 『동덕여성연구』(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제3호: 173-190쪽.
- 이효재, 1999, “21세기 미래가족: 열린가족, 평등한 가족을 위하여”, 한국여성사회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세기 전환기 여성운동과 여성이론』
- 이효재, 2003, “가부장제 사회의 극복과 풀뿌리 민주주의”, 『기억과 전망』, 4호: 153-167쪽.
- 이효재, 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
- 이효재, 2005, “앞서 떠나신 김선생에게 보내는 편지”, 『벗으로 스승으로』, 문화과학사: 138-139쪽.
- 이효재, 2006, 『아버지 이약신 목사』, 정우사.
- 이효재, 2008, “나와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30년 편찬위원회(편), 『한국여성연구원 30년: 1977-200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306-309쪽.
- Lee, Hyo-Chai, 1958, “A Study of Social Mobility in the Yi Dynasty of Korea, in the Light of the Functional and Value Theories of Social Stratification”, 『문리대학보』, 6권 2호: 43-53쪽.
- Lee, Hyo-Chai, 1961, “Size and Composition of Korean Families on the Basis of Two Recent Sample Studies”, *Bulletin of Korean Research Center*, No. 15:
- Lee, Hyo-Chai, 1963, “Sociological Review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Koreana Quarterly*, Vol.5, No. 1(Spring, 1963): 135-151쪽.
- Lee, Hyo-Chai, 1965, “Book Review: ‘A Study of Three Developing Rural Communities’

- by Roh Chang-Sub”, *Journal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Korea Research Center), No. 23(December, 1965): 45-48쪽.
- Lee, Hyo-Chai, 1967, “Patterns of Change Observed in the Korean Marriage Institution”, *Bulletin of Korean Research Center*, No. 26.
- Lee, Hyo-Chai, 1988, “The Changing Profile of Women Workers in South Korea,” in Noeleen Hazer(ed). *Daughters in Industry*, Kualalumper, APDC.

□ 편저 및 번역서

- 이효재(번역), C. 클러훈(지음), 1959, “문화의 개념” 『사상계』, 7권 9호-10호.
- 이효재(편), 1979,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 창작과비평사.
- 이효재·장하진(공역), 빅터 볼드리지(지음), 1979, 『사회학: 비판사회학의 입장에서』, 경문사.
- 이효재·허석렬(공편역), 1983,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한길사.
- 이효재(편), 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 이효재(역), 1990, 『여성노동시장이론: 여성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변증법』, 여화여자대학교출판부(맑스주의 여성노동시장론).

□ 그 밖의 참고문헌

- 강남식·오장미경, 2003, “한국여성학의 발달과 서구(미국)페미니즘”, 한국학술단체협의회(편), 2003,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울: 288-324쪽.
- 강만길, 1978,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사.
- _____, 2018, 『역사가의 시간』, 창비.
- 강인순, 2016, “이효재와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50집 4호(2016): 19쪽.
- _____, 2020, “나의 비판사회학: 월영별곡”, 『경제와 사회』, 125호: 454-464쪽.
- 강정구(역음), 1990,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 _____, 2002,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 강진웅, 2018, 『주체의 나라 북한-북한의 국가권력과 주민들의 삶』, 오월의봄.
- 고영복, 1965, “한국사회 구조의 분석” 『신동아』 1965년 2월호: 58-89쪽.
- _____, 1965, “한국사회 구조의 분석 재론-이효재씨의 반론에 답함”, 『동아일보』, 1965년 8월 5일.
- 고황경·이효재·이만갑·이해영, 1963,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경일, 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 _____, 2016,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 김수진, 2008,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 이재경, 2015,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이효재”.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4,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역사비평사.
- _____, 2019,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선인.
- 김영선, 2014, “한국 여성학 제도화 과정과 지식생산의 동학-장소, 사람, 프로젝트”, 서은주, 김영선, 신주백(편), 『권력과 학술장: 1960년대-1980년대 초반』, 해안: 133-156쪽.
- _____, 2018, “1970년대 ‘여성’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인간·민중·여성해방”, 김보현 외, 『근대화론과 냉전 지식체계』, 해안: 307-330쪽.
- 김정인, 2006a, “분단과 통일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 김경일, 김동춘, 조희연 등(공저), 『우리 안의 보편성- 학문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한울: 266-298쪽.
- _____, 2006b, “한국 여성학의 선구자 이효재 선생님 인터뷰: ‘이제 서울. 그들만의 잔치에 관심없어요’”, 『월간 참여사회』, 110호(2006년 1월호): 8-11쪽.
- 김성경, 2017, “이동하는 북한여성의 원거리 모성”, 『문화와 사회』 23호(2017년 4월): 265-309쪽.
- _____, 2016, “북한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경제와 사회』 109호(2016년 봄): 153-190쪽.
- 김종엽, 2017, 『분단체제와 87체제』, 창작과비평.
- 변형운 외 지음, 1985,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 문소정, 2004, “이효재 가족 연구에 대한 고찰” 『가족과 문화』 16집 2호: 167-200쪽.
- 서재진, 1995,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
- 손세일(편), 1976, 『한국논쟁사 4- 사회·교육편』, 청람출판사.
- 신기영, 2016, “글로벌 시각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의 양자적 틀을 넘어서”, 『일본비평』 15호: 282-309쪽.
- 양현아, 2012, 『한국가족법 읽기』, 창비.
- 오한숙희, 1988, 『한국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 192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논문.
- 여성평우회(편), 1985, 『제3세계 여성노동』, 창작과비평.
-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1990, 『한국가족론』, 까치.
- 유팔무, 2017, 『사회학으로 세상보기』, 한울.
- 윤미향, 201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5권 2호: 35-52쪽.

- 윤영민, 1994, “최근 미국사회학의 위기와 대응-버클리대와 워싱턴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역음), 『21세기의 한국 사회학』, 문학과지성사: 69-106쪽.
- 이나영, 2016,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구술사의 정치학: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집 5호: 1-40쪽.
- 이동원·함인희, 1996, “한국 가족사회학 연구 50년의 성과와 반성”, 『가족과 문화』창간호: 1-58쪽.
- 이순구, 2017,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동향”, 강영경 외(역음), 『한국 여성사 연구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124-152쪽.
- 이은숙, 1988,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재경, 2015, “한국사회학에서의 여성연구” 조대엽, 신광영 외, 『한국사회학의 미래: 사회학의 위기진단과 미래전망』, 나남: 358-409쪽.
- _____, 2015, “여성 구술생애사로 본 한국의 근대: 이효재”, 『근대와 여성의 기억 아카이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_____, 2004, “이효재의 여성·가족사회학”, 한국가족문화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발표문, 한국가족문화원.
- _____, 2003, “이효재, 우리 여성학의 시작: 한국적 특수성을 소재로 일군 우리 여성학,” 교수신문(편), 『오늘의 우리 이론 어디로 가는가- 한국의 자생이론 20』, 생각의 나무: 303-336쪽.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편), 1977, 『女性學新論』,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임영일, 1990, “여성해방의 길에 놓인 큰 디딤돌”, 『사회와 사상』, 5호: 345-354쪽.
- 임지현, 2005, 『적대적 공범자들』, 소나무.
- 장세훈, 2017,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 알트.
- 정병준, 2009,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 유학과 근대경험”, 『이화사학연구』, 39집: 29-99쪽.
- 정수복, 1994, 『의미세계와 사회운동』, 민영사.
- 정진성, 2003, “전시하 여성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한국여성학』 19권 2호: 39-61쪽.
- 조순경, 2000, “한국 여성학 지식의 사회적 형성-지적 식민성 논의를 넘어서”, 『경제와 사회』, 45호: 172-197쪽.
- 한완상, 2013, 『한반도는 아프다-적대적 공생의 비극』, 한울아카데미.
- 함인희, 2008, “가족사회학 연구 60년: 연구 주제 영역의 변화와 이론적 패러다임의 교차”, 대한민국학술원, 『한국의 학술연구: 정치학·사회학』, 대한민국학술원: 492-528쪽.
- 현영학·정세화·이남덕·이효재, 1976,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학과정 설치의 제안”,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8호: 377-390쪽.

- Alkalmat, A. and Gerald McWhoter, 1969, "The Ideology of Black Social Science" *Black Scholar*, Vol.1 No.2(December, 1969): pp. 28-35.
- Blackwell, James and Morris Janowitz(ed), 1974, *Black Sociologists :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Donald, Lynn, 1998, *Women Theorists on Society and Politics*, Waterloo, Ontario, Canada: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Classical Social Theory with the Women Founders Included," in Charles Camic(ed.) *Reclaiming the Sociological Classics- The State of Scholarship*, Malden and Oxford: Blackwell.
- _____, 1994, *The Women Founders of Social Sciences*, Ottawa: Carlton University Press.
- Mills, C. Wright,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m, Uri, 2018, *Israeli Sociology: Text in Context*, London: Springer.
- Vicky M. MacLean and Joyce E. Williams, 2005, "Sociology at Women's and Black Colleges, 1880-1940", in Anthony J. Blaisi(ed.), *Diverse Histories of American Sociology*, Leiden: Brill: 260-316쪽.
- Wallace, Ruth(ed), 1989, *Feminism and Sociological Theory*, Newbury Park, CA. : Sage.
- Watson, Wilbur, 1974, "The Idea of Black Sociology" *The American Sociologist*, Vol. 11, No. 2(May 1976): pp. 115-123.

(故)이이효재 교수 추모 및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
분단시대의 사회학, 우리 이론의 새길을 열다

분단사회 여성운동의 역사와 과제: 호주제 폐지에서 낙태죄 폐지까지

김선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분단사회 여성운동의 역사와 과제: 호주제 폐지에서 낙태죄 폐지까지

김선혜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이데올로기와 정치권력의 대립에 기반한 분단사회는 우리에게 반공을 전제로 한 사상의 부자유와 사회적 보수성을 강요해왔다. 이 보수성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간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가부장제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이효재, 1989: 225).

이 글은 한평생 한국의 가족문제와 여성문제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이론화하는 작업과 함께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적 개입을 해오신 이이효재 선생님의 지적 유산을 되짚어보며 이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계승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여성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서 이이효재 선생님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도입과 여성 50% 할당제, 부모 성 같이 쓰기 선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개입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중에서도 호주제 폐지 운동은 한국사회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한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이효재 선생님의 여성문제에 대한 분석과 여성운동에 대한 전망이 분단사회에 대한 인식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호주제 폐지 운동에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분단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이효재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해방과 함께 미국 유학을 떠났으며, 전쟁과 분단 이후 귀국 후 4·19와 5·16, 유신독재,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민주화 등 급변하는 한국사회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삶을 살았다(강인순, 2016). 이러한 개인사적 배경은 이이효재 선생님의 학문적 관심사와 문제의식 속에 밀접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이효재 선생님의 『분단사회의 사회학』(1985)을 비롯한 여러 저작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문제의식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단이라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다. 또한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 시대 사회구조의 성격을 어떻게 특징지었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우리의 의식상태, 가치관 및 인간관계나 사회행동, 즉 모든 사회적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연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이효재, 1985: 15). 이는 사회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분과의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중심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분단에 대한 인식 없이 한국사회에 대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이해가 불가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처럼 해방 이후 분단의 상황 속에서 억압받는 ‘민중’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사회학 이론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이러한 인간 해방을 위한 이이효재 선생님의 사회학 이론의 핵심에는 여성과 가족이 놓여있었다. 사회의 민주화는 가족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여성억압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는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성차별을 인식함과 동시에 각 사회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여성억압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제대로 된 분석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이재경, 2005). 또한 분단이라는 사회적 사실이 여성의 삶에 그리고 가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는 궁극적으로는 인간해방과 여성해방이라는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이효재 선생님의 삶에서 이론과 실천 그리고 연구와 운동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다.

여성운동의 성과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로서 앞으로 더욱 분석적으로 평가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여성운동의 성과가 있다면 호주제 폐지 운동과 낙태죄 폐지 운동이 될 수 있다. 호주제 폐지의 경우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가족법 개정 운동의 축적된 성과로서 2005년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8년 1월 폐지되었으며, 낙태죄 폐지의 경우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낙태죄 조항이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폐지되었다. 호주제와 낙태죄는 일견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식민지 유산으로 존속해오던 법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제와

낙태죄로 인하여 여성들이 온전한 시민권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호주제 폐지 운동과 낙태죄 폐지 운동은 모두 민주화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지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궤를 함께 한다. 또한 이제까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지 않은 사적인 문제이며 사사로운 문제로 여겨져 왔던 가족과 재생산의 영역이 가장 정치적인 문제임을 분명하게 가시화했다는 점에서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이이효재 선생님의 가족과 여성에 대한 이론화 작업 속에서 임신중지 및 재생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개정 운동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민주화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전망과 방향은 현 낙태죄 폐지운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도 유의미하다.

1.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호주제 폐지운동을 중심으로

『분단사회의 사회학』의 제2장 「한국 사회구조의 성격」에서 이이효재 선생님은 1960년대와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설명한다.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제를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설명하는 기존의 방식을 비판하며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성격이 권력과 사회집단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대미의존적인 분단사회의 한계를 역이용하여 권력의 절대화를 꾀하며 가부장제 사회의 유산을 계승하고 강화함으로써 복종적이며 위계질서적인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이효재, 1985: 146). 이처럼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가부장적 권위주의로 개념화함으로써 가부장제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물역사적인 억압체계가 아닌 특정한 시기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으로서 가부장제가 소환되고, 재구성되고, 재생산되는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처럼 권위주의적 국가는 권력 유지를 위해 가부장제를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삼으면서 소위 사적인 영역에서는 남존여비의 전통적 이데올로기와 부계가족에 예속된 여성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였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외세에 의존하는 산업화정책에서 여성을 외화획득을 위한 저임금 노동력으로 묶어두었다(이효재, 1989: 226).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적 영역에서 임금 노동자로서 일하고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가정 내 생계를 책임지는 희생적인 딸로서 혹은 누이로서 재현되고 호명되어 왔다. 또한 성별화된 이미지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유순하고 근면한 노동자로서 재현되며 이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의 전략이 되며, 동원과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김현미, 2000). 이처럼 ‘한국적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초남성적 국가주의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의 핵심 기제로 작동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여성 억압과 차별에 대한 성찰과 변화 없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이효재 선생님은 일차적으로 가족법 개정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가족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는 등 정치, 경제 및 교육상의 형식적인 평등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였지만,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 단위로서 인간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은 법률상으로도 가부장제를 답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이효재, 1985: 58). 가부장적 가족제도 속에서 여성의 존재와 가치는 “부계혈통을 계승하는 아들 낳는 도구로서나 성욕충족을 위해 서비스하는 소첩의 존재로서만 인정되며, 여성은 혼인과 더불어 남편의 아들을 낳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집과 조상 앞에 죄인”이 되어 왔다(이효재, 1989: 226). 하지만 이처럼 법적으로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가족법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국가안보상의 명목으로 보수성을 유지하는데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 이용되어왔으며 나아가 가족법의 민주화는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저지되어 왔다(이효재, 1985: 58).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의 의미와 목적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여권 신장에만 그 참뜻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권력층이나 불의한 권력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민주적 도전이며 불의한 사회 제도, 관습 및 이것을 대표하는 권력층에 대한 도전”으로 제시된다(이효재, 1978: 1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여성운동이 추진해온 가족법개정운동, 지역사회시민운동, 여성노동운동, 여성농민운동, 성폭력의 문제 및 여성교육문제 그리고 가족법 개정 운동은 모두 분단사회의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에게 강요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도전으로 재인식할 수 있으므로 가족법개

정이 법률개정만을 목표로 하는 미시적 운동의 차원에만 머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효재, 1989: 232). 이는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습, 법과 제도는 모두 민주화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족법 개정은 민주화운동의 일차적 과제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가족법 개정 운동의 핵심 의제였던 호주제는 2008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그 운동의 시작은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당시 제정 중에 있던 가족법을 평등하게 수정하고자 황신덕, 박순전, 이태영, 이회호가 주축이 되어 여성문제연구원이 만들어졌으며, 이와 함께 제1차 가족법 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957년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은 전통과 미풍양속을 내세운 보수 세력에 의해서 거의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었다(박정희, 2019: 265). 하지만 이후 1973년 6월 61개의 여성단체들이 연합한 ‘범여성 가족법 개정 촉진회’가 출범하였으며,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가족법 개정을 위한 범여성 운동’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이효재 선생님은 YWCA 사회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가족법 개정은 유신체제 안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보수 세력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해온 진보적인 여성 운동 단체들이 모여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였으며, 1989년 11월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이 결성되었다. 이처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해방 이후 실질적인 가족법 개정이 1989년에 이루어졌으며, 1997년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과 함께 다시 시작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5년 호주제 위헌 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이르러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 마침내 가부장적 부계 중심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제도적으로 가족 내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성주의 원칙 등 평등권을 위배하는 법과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들, 그리고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를 ‘가장’으로 여기는 문화적 관습들을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2. 사회정의운동으로서 낙태죄 폐지 운동

2005년 호주제 위헌 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2년간의 유예 기간 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는 과정은 분명히 1950년대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여성운동의 결실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흐름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이천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이처럼 가족법상으로는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이와 동시에 출산율 감소와 함께 이루어진 인구의 변화 속에서 저출산 위기 담론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보수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와 출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문화’되었다고 평가되었던 형법상 낙태죄가 부활하면서 동시에 낙태죄 폐지를 주요 의제로 한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 운동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재생산권 운동은 가족법 개정 운동과 마찬가지로 분단사회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 의미와 지향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주류 재생산권 담론은 프로초이스(pro-choice)와 프로라이프(pro-life)로 양분화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임신중지의 권리는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 혹은 자기결정권으로 옹호 되어왔다(Smith, 2005). 하지만 이러한 프로초이스 담론은 임신한 여성과 태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문제 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개인 여성이 실제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피임 및 임신조절을 위한 의료기술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여성해방에 큰 진전을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받지만, 한국사회에서 피임과 단산, 그리고 임신중지는 1960-7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가족계획사업은 제3세계의 경제발전을 통해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국제정치의 맥락과 적극적인 해외 원조 유치와 반공 정책의 매개로 가족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 함께 존재한다(배은경, 2012; 조은주, 2018). 1953년부터 한국사회에서 임신중지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였지만, 출산율 감소가 국가의 시책인 상황에서 임신중지는 오히려 묵인되거나 권고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사회에서 재생산의 문제는 개인 여성 선택의 문제였던 적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임신중지의 문제를 프로초이스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피임과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기술의 사용과 확산이 국가주도적인 산아제한사업에 의

해서 이루어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고 ‘출산이 국력’으로 장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임신·출산을 비롯한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다시 부각 되었다. 매년 출생 관련 통계가 집계될 때마다 언론 보도들은 출산을 저하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를 “노인 의료비와 연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재정을 압박한다. 나라를 지킬 젊은이도 없으니 국방과 안보도 위협” 받는 상황으로 경고한다¹⁾,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²⁾”되는 문제로서 의미화되며 ‘출산은 애국³⁾’이라는 국가주의적인 슬로건이 바탕이 되어 각종 모자보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임신과 분만이 여성의 건강과 권리의 문제로서 접근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를 위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출산장려정책 속에서 임신중지는 범죄화되고 피임은 제한되어 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낙태율을 반으로 줄여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신중지를 단속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010년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계획이 수립되었다.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임신중지 시술병원을 고발함으로써 임신중지는 더욱 불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태죄에 대한 첫 번째 위헌소원이 청구되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는 공익이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익⁴⁾’이라고 판시하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이 가능한 의사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낙태를 포함시키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산부인과 의사회는 임신중지시술 거부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처벌이 두려워 임신중지시술을 기피하는 의사들이 증가하고 높은 비용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임신중지를 시도하게 되어 여성 건강에 큰 위협이 실질적으로 가해지게 되었다. 또한 모자보건법상 허용사유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 해야하는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졌으며, ‘배우자 동의 조항’에 의해서 여성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동안 남성 파트너에게는 임신중지의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낙태죄로 고소를 당한 여성들의 경우 고발의 주체가 많은 경

1) 중앙일보, 2005.1.20. <조용하지만 거대한 재앙>

2) 중앙일보, 2017.7.14. <저출산은 국가 안보와 직결...아동여성에게 의료 무상 제공>

3) 2005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제41회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는 ‘인력은 국력이다, 출산이 애국이다’였다.

4) 헌재 2010헌바402

우 연인관계 혹은 부부관계였다는 점은 이 법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위해서 기능해왔음을 잘 드러내 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부터 재점화된 낙태죄 폐지 운동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며 임신중지의 문제는 협소한 의미로서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차별과 불평등, 낙인과 배제의 문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회정의 운동임을 밝혔다(Kim et al, 2019). 이제까지 국가발전과 안보를 명분으로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도구화하며 통제해오면서,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끊임없이 구분해오고 차별과 낙인을 만들어냈던 정책들, 그리고 태어나야 할 생명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생명을 구분해온 우생학의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실질적인 재생산권이 보장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17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낙태죄 폐지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안 입법이 만들어져야 했으나 2020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사실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은 2020년 10월 27일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해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한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정부의 개정안은 논란 속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낙태죄는 2020년 12월 31일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었다.

호주제 폐지 운동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폐지 역시 각 시민사회 여러 영역의 집단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2021년 현재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되었다는 것은 낙태죄 폐지 운동의 중요한 결실이자 성과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낙태죄 폐지 운동이 지향점으로 설정하였던 모든 개인이 자유권으로서, 평등권으로서, 그리고 사회권으로서의 재생산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주의적 재생산 담론 및 정책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반군사주의와 재생산 정의

이제 임신중지는 범죄로서 처벌받는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피임과 임신중지가 차별과 낙인 없이 실천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분단사회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전망이 요구된다.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침해해도 되는 정당화 사유로서 끝임 없이 저출산 위기 담론이 소환되고 있으며, 저출산이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위기로 강조되는 배경에는 인구감소를 국가안보의 위기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다(신성호&양희용, 2015).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임신중지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저출산의 해결법으로 시도되었으며, 임신중지가 이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해결이라는 국가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임신중지 및 피임의 영역에 국가의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거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되던 시기에는 정관수술비를 지원하며 아파트 분양 우선권도 지급하였으나 2004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하나로써 피임을 위한 정관·난관 수술의 경우 비급여화 되었으며, 2012년 시도되었던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은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정책⁵⁾으로 비판받아 무산되었다. 나아가 2021년 현재에도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저출산 시대'에 오히려 임신중지를 조장할 수 있다는 근거로 반대되고 있다⁶⁾. 이처럼 저출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섹슈얼리티, 계급, 장애, 혼인여부 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에서 재생산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운동은 반군사주의 평화운동과 함께 전망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 군사주의가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조하며 위계적인 가치질서를 어떻게 강화했는지에 대해 많은 이론적인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Cockburn, 2013; Enloe, 2000). 군사주의는 군대의 목적과 논리가 확장되어 민간 영역의 문화, 정치, 경제 등 일상생활로 확장되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전쟁과 전쟁준비라는 것이 정상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주의는 건강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이익을 안보에 종속시키게 된다(Wiist at al., 2014). 한국사회에서도 군사주의 문화는 일상의 젠더 규범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성과

5) 의사신문, 2012.05.31.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거듭 반대한다>

6) 메디칼업저버, 2021.01.27. <인공임신중절에 건보 적용?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재생산 건강의 영역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사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일수록 여성에게 출산의 책무가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국가에서 오히려 재생산 관련 건강의 지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Granek & Nkash, 2017). 이는 한국사회에서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임신과 출산의 영역에 저출산 해결이라는 근거로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모성사망비의 증가 등 여성건강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이효재 선생님의 가족개혁운동은 호주제 폐지로 상징되지만,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운동은 너무 편협하게 법적 문제의 차원에만 머물렀었다”(이효재, 1985: 349)라고 지적되었던 것처럼 호주제 폐지는 가족의 민주화에 이르기 위한 시작일뿐 분단 이데올로기와 군사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낙태죄 폐지 역시 재생산권을 확보하고 재생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는 있으나 저출산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는 많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분단 이데올로기를 넘어선다는 것은 저출산 이데올로기를 극복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저출산을 극복해서 유지해야만 하는 국가는 어떠한 국가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성장담론과 정상성이 초래한 소외와 차별, 억압과 폭력의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이 보다 깊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순, 2016. “이효재와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50(4), 1-25.
- 김현미, 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16(1), 37-64.
- 박정희, 2019. 『대한민국 여성 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이이효재』. 다산초당.
- 배은경, 2012. 『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 신성호·양희용, 2015. “저출산, 초고령 사회와 국방”. 『국방연구』, 58(3), 1-27.
- 이재경, 2005. ‘이효재의 여성·가족사회학’. “이효재 가족사회학의 재조명과 21세기 한국가족”. 한국가족문화원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문.
- 이효재, 1978. 『여성의 사회의식』. 평민사.
- 이효재, 1985. 『분단사회의 사회학』. 한길사.
- 이효재, 1989. 『한국의 여성운동-어제와 오늘』. 정우사.
- 조은주, 2018. 『가족과 통치』. 창비.
- Cockburn, C. 2013. War and security, women and gender: An overview of the issues. *Gender & Development*, 21(3), 433-452.
- Enloe, C. 2000.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Univ of California Press.
- Granek, L., & Nakash, O. 2017. The impact of militarism, patriarchy, and culture on Israeli Women's reproductive health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4(6), 893-900.
- Smith, A. 2005. Beyond Pro-Choice versus Pro-life: Women of Color and Reproductive Justice. *NWSA Journal*, 17(1), 119-140.
- Kim, S., Young, N., & Lee, Y. 2019. The Role of Reproductive Justice Movements in Challenging South Korea's Abortion Ban. *Health and Human Rights*, 21(2), 97-107.
- Wiist, W. H., Barker, K., Arya, N., Rohde, J., Donohoe, M., White, S., & Hagopian, A. (2014). The role of public health in the prevention of war: Rationale and competenc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4(6), 34-47.

(故)이이효재 교수 추모 및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
분단시대의 사회학, 우리 이론의 새길을 열다

분단의 재인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재구성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분단의 재인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재구성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8년 4월 이후 남북관계의 미래상으로서 ‘평화’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당연하게 여겨져왔던 시기를 넘어 지금은 ‘평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평화·통일교육으로, 정책의 방향도 ‘한반도 정책’ 또는 ‘평화와 번영의 정책’으로 변화했으며, 담론적 차원에서도 평화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화’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평화학과 평화운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요한 갈통(Johan Galtung)이 제안한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 소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서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평화의 개념이 확장된 측면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는 현재의 정전상태를 넘어 종전된 상태로 구상되며,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정책적, 실천적 과제가 되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평화의 시작이자 과정으로 여겨지면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외적 실천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전상태의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한 과정으로서 평화협정 체결은 중요한 목적이자 수단이 된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상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에서 다루어야 할 평화의 내용 역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정전상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과 군사적 긴장의 문제가 갖는 중요성과 엄중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상하는 데 있어 어떤 평화를 구상할 것인지, 남북한이 합의해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평화와 관련한

논의는 결국 군사적인 문제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에 집중한 평화에 대한 논의 과정은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동안 군사와 안보 분야는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개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와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젠더 이슈는 부차시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군사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다면 평화협정 체결 과정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평화적 요소가 주변화될 가능성도 높다. 단적으로 최근의 ‘평화경제’ 논의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평화가 남북한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적 협력이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평화경제 논의는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적 성장이 단순히 양적 성장에 국한된다면 경제적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반평화적, 비평화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간과된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남북한의 경제발전 과정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개발협력 과정에서 여성 인권이 침해된 사례들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하기에 한반도 평화경제는 “양적 성장과 발전주의 지향을 넘어 기존의 발전모델과 경제체제를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혁신할 것인가”¹⁾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같이,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분단이 남북한의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구축 및 유지해 간 방식을 드러내고,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분단’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영토의 분리, 다른 체제, 군사적 대립 상태로서 분단을 인식한다면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대한 논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반면, 분단을 남북한 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자 각 사회의 질서,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과 심성을 만들어내는 기제로 이해한다면 평화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단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분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방식과 분단과 평화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과 실천을 살펴보고, 향후 어떤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이일영(2020), “평화경제론 재검토: 한반도경제론의 관점에서”, 『동향과 전망』 108호, 182쪽.

2. 분단에 대한 논의 지형

분단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이루어졌고, 최근까지도 분단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분단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왜 한반도가 분단되고, 지속되는지, 분단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관심의 하나였다. 그리고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분단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시사점을 찾는 것도 분단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분단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 즉 분단사적 접근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편으로, 정책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논의되었다.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함께 분단을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1980년대 들어 분단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었는데, 분단 자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 분단이 한국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효재(1985)의 『분단시대의 사회학』과 변형윤 외(1987)의 『분단시대와 한국사회』이 대표적이다. 이효재의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분단이 한국사회가 내재한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당시 한국사회의 비민주성, 사회구성원의 정체성 문제, 여성의 소외와 주변화가 분단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드러내면서 분단이 극복되어야 할 이유를 사회의 민주화와 공동체의 회복, 여성의 주체화에서 찾았다. 변형윤 외(1987)의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역시 분단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분단이 한국사회의 구조를 만들어간 방식을 규명했다. 이러한 접근은 영토의 분단을 넘어 분단이 한국사회에 내재화된 방식을 드러내고, 분단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비민주성과 폭력의 문제를 분단과 연계하여 규명하고자 함으로써, 분단이 단순히 군사적 문제, 영토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분단의 해소, 통일의 목적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발전,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에서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단에 대한 접근은 현재로까지도 이어진다. 2000년대 들어 체제와 제도, 사건 중심의 분단연구 경향에서 탈피하여 분단이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²⁾ 한국전쟁의 경험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남겼는지와 관련하여 분단과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³⁾ 이산가

2) 조우현·조영주(2014), “분단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10권 2호.

족에 대한 경험연구도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분단이 남북한의 마음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논의⁴⁾와 분단이 낳은 폭력적 행위와 구조를 분단폭력으로 개념화한 연구⁵⁾도 있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의 분단논의뿐만 아니라 분단과 일상, 분단과 폭력에 대한 논의로 분단 연구가 확장되면서 우리 안의 분단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분단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결국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가 어떻게 분단과 매개되는지, 왜 분단이 현재에도 문제인 것인지를 밝힘으로써 분단으로부터 탈(脫)하기 위한 노력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왜 분단이 지속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분단을 이론화하는 작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분단체제론이 있는데, 1992년 백낙청의 “분단체제 인식을 위하여”라는 글에서 분단체제론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다. 분단체제라는 용어는 백낙청 이전에도 사용되기는 하였지만,⁶⁾ 개념화한 것은 백낙청이 처음이다. 백낙청은 세계체제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분단체제론을 개념화하였는데, 분단이 어떻게 유지, 작동하는가를 ‘체제(system)’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했다. 백낙청은 분단체제를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보며,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에서 각각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체계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남북한이 묘한 공생관계를 가지면서 스스로 재생산하는 힘을 지닌 체제 비슷한 것이 만들어진 것”⁷⁾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분단체제가 기본적으로 반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성격을 띠며, 한국 사회의 현실은 분단체제의 일부로 존재하는 사회의 현실로, 결국 분단은 남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⁸⁾ 이러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유지의 매

- 3) 김성민·박영균(2010), “분단의 트라우마에 관한 시론적 성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제2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연구단 역음(2009),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 서울: 선인.
- 4) 이우영 외(2016), 『분단된 마음 잇기』,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이우영 외(2017), 『분단된 마음의 지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이우영 외(2019),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성경(2020),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파주: 창비.
- 5) 김병로·서보혁(2016), 『분단폭력』, 파주: 아카넷.
- 6) 박순성(2007)에 따르면 장준하가 처음으로 분단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강만길도 1978년 『분단 시대의 역사인식』에서 분단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박순성(2007), “한반도 분단과 대한민국”, 이병천 외 역,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역사와 좌표』, 서울: 한울, 101-102쪽.
- 7) 백낙청(2012), 『2013년체제 만들기』, 파주: 창비, 141쪽.
- 8) 백낙청(2012),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파주: 창비;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커니즘을 이론화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의 성격과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백낙청의 논의는 분단체제를 한반도 전체의 사회와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실체'로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분단으로 귀착되는 '과잉 분단책임론', '과잉 분단귀착론'이라는 문제제기를 받았고,⁹⁾ 분단체제론이 적대관계에 놓여 있는 두 국가의 사이의 일반적 관계를 넘어서는 특징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분단 현실을 설명하는 독자적 이론이라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¹⁰⁾

이러한 분단체제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차원으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차용하여 분단을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민족의 분열,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의 상태라는 하나의 실재”로 인식된 분단을 '수행'의 차원에서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분단을 존재하는 것(being)이 아니라 행해지는 것(doing)”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¹⁾ 분단연구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분단 권력을 분단의 원인으로 보고 그것에 환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권력이 되고 사회에서 수행되는가, 결과로서의 권력이 구성되는 과정과 역동성, 권력의 효과”¹²⁾여야 하며, 지배적 인간 행위자인 몇몇 기득권자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단을 수행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일상생활에서 분단이 행사되는 방식과 개인이나 다른 행위 주체가 이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¹³⁾는 것이다. 이는 분단의 수행성 혹은 수행적 분단론으로 개념화되었는데, 대문자 분단이 아닌 소문자 분단 '들'로 분단을 인식하고 우리 사회 안에서 분단이 수행되는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탈분단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행적 분단론은 좀 더 구체화된 방식으로 한국사회 내의 문제에 천착한다. 분단을 인식 또는 비인식하게 하는 장치(dispositif)들, 분단이 수행되는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구조와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내재화된

9) 박순성(2015),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30쪽.

10) 박순성(2015),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36-37쪽.

11)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2015),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5-6쪽.

12) 홍민(2015),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114쪽.

13) 홍민(2015),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엮음, 『분단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수행성』, 파주: 한울아카데미, 114-115쪽.

분단들을 드러내고, 탈분단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러한 논의는 분단을 한반도적 맥락에서 이론화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단에 대한 논의는 분단을 이론화하는 작업에서부터 분단이 한국 사회와 사회구성원의 현재를 구성하는 데 미친 영향, 분단으로 인한 피해와 트라우마까지 다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결국 분단은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폭력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가 우리 안에 내재된 분단들을 드러내고 분단으로 인한 폭력, 불평등과 차별을 다룰 때, 분단으로부터 탈(脫)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3. 분단과 평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분단과 관련하여 여성들은 실천적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다. 분단 상황에서 여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 분단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어 왔다. 분단의 성별화된 효과와 영향에 천착하여 분단과 통일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군비경쟁으로 인한 여성복지 관련 예산의 축소,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인권 피해의 문제, 군사주의 문화와 가부장적 남성성의 강화 등 분단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⁴⁾ 또한 통일분야는 주로 남성들의 활동무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담론이 남성중심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러한 경직된 성별분업은 성차별적 인식에서 출발하므로 이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¹⁵⁾ 게다가 독일통일이나 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목도하며 한반도 통일 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14) 박의경(2006), “한국에서의 여성, 평화 그리고 통일: 여성주의적 미래 사회를 위하여”, 『대한정치학회보』 14집 2호.

15) 김엘리(2008),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 2008 세교연구소 심포지엄 「기울어진 분단체제, 대안을 만들때다: 남북연합과 한반도 선진사회 건설」자료집.

처럼 여성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넘어 분단 상황에서 여성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분단을 문제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온 것이다. 여성의 분단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이이효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식민지 사회에서 여성문제가 여권의식으로만 이해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족적 공동체의 주인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분단시대에 있어서, 여성문제를 여성지위 향상만을 요구하는 문제로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여성으로서 민족과 사회에 대한 민주적 주인의식이 심화될 때, 각 분야에서 피해당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에 더욱 민감해지며 그 구조적 모순과 원인을 더 예리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식이 분단사회의 문제 전반으로 확대될 때, 여성들이 극복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며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⁶⁾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놓여 있는 상황, 즉 분단에 대한 여성의 이해와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주체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문적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분단이 여성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여성이 경험한 한국전쟁, 전쟁과 분단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질서를 재편한 방식들을 탐색함으로써 전쟁과 분단의 의미를 여성의 경험과 입장에서 재해석했다.¹⁷⁾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여성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평화 과정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했고,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을 논의해왔다.¹⁸⁾ 이와 같은 논의들은 그동안 주변화된 전쟁과 분단에 관한 여성의 경험을 복원하고, 여성을 주체화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분단과 전쟁의 다층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전쟁과 분단 상황에서 여성이 어떻게 주체로 자리매김해가는지를 밝

16) 이이효재(1985), 『분단시대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302-303쪽.

17) 이재경 외(2013),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홍천: 아르케; 김현아(2018), 『그녀에게 전쟁: 여성의 눈으로 전쟁을 말하다』, 서울: 슬로비; 이임하(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한국전쟁과 젠더』, 서울: 서해문집 등.

18) 함인희(1998), “베트남 통일의 교훈: 여성의 사회통합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14집; 홍찬숙 외(2012), 『독일 통일과 여성: 젠더 관점에서 조망한 독일의 분단과 재통일』,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힘으로써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주체화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은 기존의 분단과 통일 담론이 갖는 성차별성을 문제제기해왔다. 1980년대 들어 국가중심의 통일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¹⁹⁾ 여성은 기존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을 확대해갔다. 동질성을 근거로 한 민족담론과 통일담론을 비판하며 민족 및 민족주의 담론이 내포하는 성차별주의를 문제화하고, ‘긍정적 이질성’으로 ‘부정적 동질성’을 해체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²⁰⁾ 그리고 여성들은 민족/민족주의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민족과 민족주의는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했고, 민족주의는 우리라는 공동운명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경계선 안의 내부 소수자의 다른 이해관계와 문화적 요구를 비가시화하고, 집단주의 논리 속에서 억압하는 등 소수자, 특히 여성차별적 기제를 낳아왔다.²¹⁾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이 분단 이전부터 남북한이 고유했던 심성과 정서, 문화,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에 내재된 여성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기제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을 중심으로 한 동질성의 추구는 기존의 성차별적 젠더질서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²²⁾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남북한 사회가 체제 유지와 발전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동원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여성의 노동력을 희생당한 경험이나 민족과 국가 안보의 논리가 우선되면서 여성이 겪은 인권 침해의 문제 등을 근거로 한다. 이처럼 기존의 분단과 통일담론에 대한 여성의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왔던 것을 새롭게, 다르게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보여준다. 단적으로

- 19) 시민운동은 국가 중심의 통일담론의 내용적, 형식적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통일을 체제와 이념 차원에서 서로 다른 두 정치체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통일당위론으로 인해 통일이 최우선적 가치가 됨에 따라 복지, 자유, 평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사소화된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통일담론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통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통합, 탈분단 등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념과 체제의 통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차원의 통합, 남북한의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상태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존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총체적인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탈분단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조영주(2012), “통일담론과 여성의 실천”, 『북한학연구』, 제8권 제2호, 249-251쪽.
- 20) 조순경(2000), “가부장적 시장경제와 가부장적 계획경제의 만남: 남북경제협력과 여성노동”, 한국여성학회 제3차 월례발표회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교류의 문제」 자료집.
- 21) 권인숙(2007),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통일과 통일운동”, 민화협 여성위원회 주최 2008 여성통일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참여」 자료집.
- 22) 조영주(2009), “여성통일운동에 관한 몇가지 물음: 여성통일운동의 쟁점과 전망”, 시민평화포럼 역음, 『시민이 말하는 평화, 시민이 참여하는 통일』, 서울: 백산서당.

남북관계가 진전되던 시기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여성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의 결합’이라는 논리를 비판했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 여성노동력이 경쟁하게 되면 남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히기도 했다.²³⁾ 이와 같은 여성들의 분단과 통일담론이 정당성을 가져온 맥락에 대한 문제제기와 분단과 통일이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침을 드러내는 작업들은 통일 또는 평화의 과정이 사회구성원이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전제이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분단과 전쟁의 여성 경험의 복원과 역사화, 통일담론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가 분단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다시 보는 작업들이 일군의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분단은 젠더에 기대어 지속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왜 페미니즘 관점에서 분단과 탈분단을 논의해야 하는지를 담론화하고, 분단이 혐오와 비정상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최근의 여성 혐오와 감염병 등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분단과 군사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분단 사회에서 어떻게 탈군사주의가 가능한지, 징병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했다.²⁴⁾

이러한 시도는 군사주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 국제관계학자와 평화학자의 이론적 논의의 성과에 기반을 둔다. 군사주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표상으로서 젠더, 사회적 관계의 구성적 요소이자 권력관계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방법으로서 젠더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은 ‘개인적인 것이 국제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명제를 선언하며 전통적인 안보와 평화 개념이 젠더화된 방식, 안보와 평화의 주체로서 남성으로 대표되는 인간에 대한 문제제기, 안보의 범위와 대상, 주체의 문제, 군대와 군사주의로 인한 젠더폭력과 젠더위계화의 문제를 다루어왔다.²⁵⁾ 이는 평

23) 조순경(2000), “가부장적 시장경제와 가부장적 계획경제의 만남: 남북경제협력과 여성노동”, 2000년 한국여성학회 제3차 월례발표회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남북교류의 문제」자료집.

24) (사)피스모모의 평화페미니즘연구소는 페미니즘 평화학 포럼을 개최하여 네 개의 주제로 페미니즘 평화학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네 개의 주제는 “탈/분단, 왜 페미니즘인가”(이슬기, 조영주), “분단은 젠더에 기대어 지속된다”(허윤), “감염병을 통해 분단, 불구, 불온 말하기”(나영정), “분단사회에서 탈군사주의를 디자인하다”(오미영)이다. 이외에도 징병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25) 안 티크너(J. Ann Tickner)는 현실주의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관계학자들이 안보의 주체로 가정하는 인간은 ‘남성’으로 대표되는 것이며, 이 때 남성은 군사화된 남성을 전제하며 그로 인해 여성이 타자화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국가의 군사적 안보가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

화와 안보 논의에서 여성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를 주요 분석의 범주로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²⁶⁾

군사주의, 평화, 안보에 대한 여성학자들의 논의는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단과 평화 논의에서 여성이 참여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단과 평화 논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관련하여 여성주의자들은 한국의 군사주의를 문제화해왔다. 군사주의를 “군대의 존재와 힘의 부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정의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위계와 통제와 훈련이 핵심이라 믿고 효율적인 병사 역할을 위해 필요한 남성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민족과 우방이나 대단위 집단의 이름 하에 집단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가치 등이 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²⁷⁾ 분단이 군사주의를 확산 및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 하에 한국 사회에서 군사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을 밝히면서, 특히 한국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구성된 방식을 설명해왔다. 구체적으로 징병제가 젠더 위계를 만들고, 사회적 소수자를 타자화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등 분단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질서와 규율, 정상성과 비정상성, 위계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젠더가 분단을 표상하는 데 동원되는 방식을 문제제기하기도 했는데, 남한과 북한 각각의 사회, 남북관계가 젠더를 통해 재현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²⁸⁾ 한국의 군사주의에 대한 논의와 같이 분단과 평화에 대한 논의도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분단과 젠더에 관한

적 안녕을 보장하지 못함을 재인식해야 하고, 개인적 관점에서 안보를 고려할 때 국가중심적이며 군사주의 중심의 안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티크너 지음, 황영주 옮김(2001), 『여성과 국제정치』,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신시아 인로(Cynthia Enloe)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영역에서 여성들이 국제정치에 의해 동원되는 방식을 밝히고, 군사주의가 일상에 침투한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성과 전쟁, 여성과 군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신시아 인로 지음, 권인숙 옮김(2001), 『바나나, 해변, 그리고 군사기지: 여성주의로 국제정치 들여다보기』, 서울: 청년사; 신시아 인로 지음, 김엘리·오미영 역(2015),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서울: 바다출판사.

26) 조영주(2018), “평화와 변영의 한반도 구상과 성인지적 접근”, 황정임 외, 『평화와 변영의 한반도: 성주류화 접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7) 권인숙(2000),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26-27쪽.

28) 한설아(2002), “남북한 민족주의와 여성의 몸”,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20주년 기념학술자료집; 김엘리(2008), “여성의 시각에서 본 통일”, 2008 세교연구소 심포지엄 「기울어진 분단체제, 대안을 만들때다: 남북연합과 한반도 선진사회 건설」자료집; 조영주(2019), “평화와 혐오의 시대, 성평등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색”, 『경제와 사회』, 2019년 여름호; 허윤(2018), “국가주의의 멜로드라마와 두 개의 한복: Pinch”, <https://thepin.ch/think/mljgz/woman-wearing-hanbok>.

연구들이 여성 경험과 한국적 현실에 천착하여 분단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루고자했던 성과는 분명하나, 아직까지 분단과 평화,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는 제한된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향후 한국적,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하고, 분단과 평화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여성의 전환적 실천을 통한 분단과 평화의 재구성

이론적, 학문적 차원에서 분단과 평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이 제한된 수준에서 이루어진 한편으로, 실천적 차원에서는 많은 성과를 남겨왔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성의 실천적 노력들은 남북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여기서는 여성들의 실천들이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어떤 함의들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여성들은 “최루탄을 쏘지말라”며 반생명적 경찰의 진압에 항의했다.²⁹⁾

그동안 여성들은 전쟁과 군대가 여성에게 가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문제제기하며 반전, 군축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1974년 원폭피해자 지원 운동, 1980년대 반전반핵운동, 핵발전소 건설 반대운동, 최루탄 추방운동, 1990년대 방위비 삭감운동, 군예산집행감시 운동 등을 펼쳐왔고, 국제사회적 차원에서도 걸프전 반대운동, 아프간,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반파병운동 등 전쟁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했다. 직접적인 전쟁을 막기 위한 여성의 노력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에서 반평화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최루탄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모든 폭력적 행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 온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폭력적 수단을 반대하는 실천들은 평화를 위한 과정 자체가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 전쟁 무기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9) 박정희(2019). 『이이효재』. 파주: 다산북스, 182쪽.

그리고 전쟁과 군대로 인한 여성 인권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기생관광 반대운동, 일본군‘위안부’문제 및 기지촌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개발, 동맹, 안보가 여성을 수단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일본군‘위안부’나 기지촌 여성의 문제는 전쟁 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간주하며 전쟁과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활동으로 확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의 논리가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를 보여주며 국가 중심의 안보, 남성 중심의 안보를 문제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그에 따라 군사안보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문제시하며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인간안보에서 ‘인간’이 누구를 가정한 것인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경험을 통해 체득한 안보 개념의 문제, 전쟁의 성별화된 폭력성 등은 학문적 차원에서 안보와 국가를 재개념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여성의 경험이 학문적, 이론적 자원이 된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지배했던 모든 나라에 걸쳐 있는 문제였다. 그 점에서 이 문제는 아시아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했다.³⁰⁾

전쟁과 군대에 의한 여성 폭력 피해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은 국제적 차원의 여성 연대로 이어졌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를 경험한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의 여성뿐만 아니라 가해국인 일본의 여성들과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했다. 전쟁과 군대에 의한 여성 폭력의 문제는 민족이나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차원, 국제사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여성 인권과 폭력이 곧 평화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평화주의적 관점, 여성 연대의 실천은 분단의 경계를 넘는 첫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1992년 9월 1일,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평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같은 해 4월에 완공된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달리는 남한의 국민들이었다.³¹⁾

30) 박정희(2019). 『이이효재』, 파주: 다산북스, 209쪽.

31) 박정희(2019). 『이이효재』, 파주: 다산북스, 215쪽.

분단 이래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분단의 경계를 넘어 북한의 땅을 밟은 첫 사례가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남한 여성의 방북이었다. 일본부인회의 중개를 통해 남북한 여성의 첫 만남이 동경에서 성사된 이후, 북한 여성의 서울 방문, 남한 여성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분단의 경계를 넘었던 여성들의 시도는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평화를 만들고자 했던 여성들의 노력의 성과이다. 여성들의 첫 방북과 남북여성교류는 처음부터 여성의 연대, 평화주의적 실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성들의 경계를 넘는 연대는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1980년대부터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노력을 벌였고, 북한의 핵문제나 군사기지의 문제와 관련해 여성들 간의 연대를 도모했다. 특히 2007년 이후 한반도의 전쟁 위기와 핵위험 해소를 위해 6자회담 당사자국 여성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조직하여 회의를 개최했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여성들과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15년 5월 24일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에 비무장지대 횡단(Women Cross DMZ)은 새로운 경계넘기의 시도이며 초국적 여성연대의 움직임이었다.³²⁾ 이처럼 여성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은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적 차원의 평화를 위한 활동이자 운동이었으며, 남북한 여성의 연대, 남북한 여성과 국제사회의 여성 간의 연대의 과정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남한의 대표단을 직접 면담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윤정옥은 북한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곁에 있던 북한 인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주석님, 저는 금강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금강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³³⁾

이이효재는 자본주의를 택한 남한 정권이나 사회주의를 택한 북한 정권 모두가 가부장제적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여성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적이

32) 이진옥(2016), “WOMENCROSSDMZ: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경계넘기”, 『여성학논집』, 제33집제2호.

33) 박정희(2019). 『이이효재』. 파주: 다산북스, 217쪽.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들의 힘으로 여성 은행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여력이 생겼을 때 되갚는 여성들의 기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북한 자매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³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와 제도, 수단을 반대해왔던 여성의 생명에 대한 인식은 생태와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장되었다. ‘금강산 케이블카’ 반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발과 발전이 반평화적, 반생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남북한의 경제적 성장, 발전,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생명적, 반평화적 요소들을 삭제하고, 과정과 결과 모두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남북한 사회를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각 사회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역량 강화와 여성들 간의 연대가 필요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여성이 주체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덧붙여 여성들은 일상적 차원에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꾀하였다. 분단과 전쟁, 군대로 인한 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차원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이러한 활동은 전쟁과 분단, 평화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상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 갈등예방교육, 비폭력운동 등 폭력과 갈등을 반대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동안의 여성들이 해 온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본 것은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실천들이 그 시기 전환적이었고, 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분단과 전쟁이 사회구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단이 사회구성원 각자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경험이 되는지를 실천을 통해 드러내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과정이어야 하는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려야 할 평화가 어떤 미래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천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논의 과정이 평화로

34) 박정희(2019). 『이이효재』. 파주: 다산북스, 220쪽.

운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평화적, 반평화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평화에 대한 미래의 상이 양적인 성장으로 치환되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개발과 착취를 결과할 가능성을 내재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다. 그리고 평화의 과정에서 누구의 경험이 포섭 또는 배제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문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재구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분단에 대한 학문적 논의, 분단과 평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논의와 실천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상해야 할 한반도의 평화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차별과 폭력, 혐오를 야기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분단은 우리의 현실에 여전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의 여러 갈등과 폭력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고, 갈등과 폭력적 상황을 야기하는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상태여야 하며, 분단을 기제로 규율화된 규범과 질서, 위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로서 분단, 영토의 분리로서 분단을 넘어 분단을 다시 인식하는 작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분단이 작동하는 방식도 함께 규명함으로써 남북한 사회에서 공히 평등하고 민주적인 질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탐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평등하고 상호적인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과 평화와 관련한 학문적 논의와 실천을 복기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또다른 하나는 결국 분단과 평화는 남북한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의 문제라는 점이다. 분단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율하였는지, 분단이 야기하는 폭력과 인권침해, 비민주성이 무엇인지, 분단이 사회 구성원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때 우리가 상상하고 실천해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분단시대의 사회학』이 보여준 학문적 작업들은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재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우리의 분단 경험을 중심으로 우리 안의 분단들을 드러내는 학문적 작업이 이루

어겨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분단의 일상성, 분단으로 인한 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들을 더 폭넓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규범들이 어떻게 분단과 연계되는지, 사회조직적 제도와 다양한 장치들이 어떻게 분단을 재생산하고, 우리의 의식적, 무의식적 행위가 분단을 유지 혹은 탈하게 하고 있는지를 경험 속에서 발견하고 추적하는 학문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내용적으로 현재의 한국적 상황이 분단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밝힐 수 있어야 분단과 평화에 대한 논의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문과 실천의 연계이다. 분단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운동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경험과 실천의 과정을 역사화함으로써 학문적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문과 실천은 상호 발전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단과 평화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접근은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반복적으로 밝혔지만, 분단은 구체화된 일상에서 작동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한 영향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그렇다고 할 때 분단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비가시화된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은 분단이 내재한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탈분단과 평화를 위한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론과 실천을 통해 문제제기했던 분단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접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은 분단과 평화가 논의되고 실천되는 장에서 나타나는 위계 속에서 주변화되어 왔기에 비판적 논의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인간안보나 분단의 일상성에 대해 이미 여성들이 논의를 해왔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주류 학문이나 실천의 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어떤 문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서야 이러한 비판적 논의들이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때도 여성들의 논의는 외면당하고 남성들의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학문과 실천의 장에 존재하는 위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분단과 평화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故)이이효재 교수 추모 및 재출간 기념 학술대회
분단시대의 사회학, 우리 이론의 새길을 열다

토론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1〉

발표 〈분단의 재인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재구성〉에 관한 토론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조영주 박사의 글 “분단의 재인식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재구성” 토론문을 작성하려 준비하는 동안 끊임없이 질문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다. 질문에 이어 다른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새로운 형태의 질문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가 그만큼 통일과 평화, 분단의 개념을 각자 소유한 채 서로 공유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적어도 학문적 공동체 내에서는 통일과 평화, 분단의 개념을 어느 정도 공유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 효과가 미약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토대로 아래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해 보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조영주 박사가 제시한 목차에 따라서 토론자가 질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할 예정이다.

1. 들어가며

□ 조영주 박사는 오늘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단계를 넘어서 통일교육은 평화통일교육으로, 정책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시기로 진입했는데 평화 개념 논의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해 놓았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 개념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통일 이전에 분단 개념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일이 있었는가? 통일의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할 북한의 개념은? 한반도 평화의

개념은 통일/ 분단/ 북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개념인가?

□ 조영주 박사는 평화협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평화의 내용과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과제로 제시해 놓았다. 남북한이 합의해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 논의하지 않는 한 평화 관련 논의는 결국 군사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 결과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지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 남북한이 평화협정에서 다루어야 하는 평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면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가 도래하는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의 어느 한 쪽이 그 협정을 어기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 어느 일방의 도발이나 쌍방의 충돌로 평화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평화협정 체결이 곧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을 구성하는가?

- 군사와 안보 중심의 평화 논의가 아니라면. 평화 논의에서 군사와 안보 중심의 주제를 배제한다면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젠더 이슈를 부차적으로 두지 않게 되는가? 이 말은 곧 군사와 안보 중심의 평화 논의 틀 안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고 젠더 이슈를 증시하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과 이어지기도 한다.

□ 조영주 박사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은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하며 평화 개념을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해 놓았다. 한 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What to do 제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How to do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 평화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 ‘분단’ 개념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조영주 박사의 주장은 앞서 지적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How to do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시도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실제로 분단을 영토의 분리, 다른 체제, 군사적 대립 상태

를 넘어 남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질서,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과 심성을 만드는 기제로 이해한다면 평화 논의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었다. 그런데 영토의 분리, 다른 체제, 군사적 대립 상태라는 분단의 실체와 남북한 사회 내부의 질서와 그 내부 구성원의 정체성과 심성을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는 분단의 실체라는 두 개 영역이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2. 분단에 대한 논의 지형

- 조영주 박사는 분단 관련 학술적 연구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왜 그랬을까? 하필이면 1970년대 당시를 기점으로 분단 관련 학술적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는 분단과 통일, 평화 개념을 풍성하게 논의하는 데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닐까?
- 이 질문은 왜 하필이면 1980년대 들어서 분단을 극복해야 할 이유를 민주화와 공동체의 회복, 여성의 주체화에서 찾았는지, 2000년대 들어서 체제와 제도, 사건 중심의 분단 연구가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로 이어지는지 논의해 볼 필요는 없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 “분단에 대한 논의 지형” 부분을 읽으면서 북한학과 교수인 토론자는 어쩔 수 없이 북한/ 북한사회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영주 박사는 2000년대 이후 연구 동향을 소개하면서 이런 흐름은 분단 연구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 연구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가 어떻게 분단과 이어지는지, 어떻게 분단을 넘어 탈분단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국사회의 현실이 분단체제의 일부로 존재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조영주 박사의 논리에 동의하며 한편으로 이들은 과연 북한사회와 아울러 오늘도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다양한 구성원의 존재를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하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다.

- 2000년대 이후 이들의 연구동향은 분단/ 통일/ 평화의 또 다른 당사자로서 북한사회와 그 구성원을 타자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은 북한학 전공자의 지나친 우려일 따름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3. 분단과 평화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조영주 박사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통일분야는 남성의 활동무대로 인식하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담론 역시 남성중심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만큼 여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영주 박사의 논의에 동의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여성주의 접근은 과연 여성 영역으로 묶어 두어야 하는 방식인가 하는 의문을 펼쳐낼 수 없었다.

- 여성주의 접근이 여성을 필두로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관점으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이효재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셨을지 의문이 들었다.

□ 조영주 박사는 여성주의 접근의 성과를 서술하면서 그동안 국가중심의 통일논의에 반하여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여성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상황을 새롭게, 다르게 보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권력자의 성추행 사건에 대응해 온 여성단체의 모습은 이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었다. 그동안 여성주의 중심의 시민단체 활동은 과연 본질적으로 국가중심의 통일논의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해도 될 것인가?

□ 분단과 평화 논의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차원을 넘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영주 박사는 지적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영역은 자세히 논의하지 않은 채 지나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무엇을 할 것인가 단계를 넘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4. 여성의 전환적 실천을 통한 분단과 평화의 재구성

- 그동안 여성단체가 “최루탄을 쓰지 말라” 하는 반생명적 진입에 항의하는 등 모든 폭력적 행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평화를 위한 과정도 평화롭게 진행해야 하며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의 글이 아마도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하는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 조영주 박사는 분단 이래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경계를 넘어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사례로 1992년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대표단의 업적을 제시했다. 당연히 그 일은 기념비적 업적으로 평가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념비적 업적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도 좋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기념비적 업적이 왜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분석해서 원인을 찾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 2015년 5월 24일 Women Cross DMZ 행사 역시 비슷한 의문을 남긴다. 이렇게 한 번씩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는 행사를 거창하게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성주의 관점의 분단/ 통일/ 평화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냈고 할 수 있을까?

- 조영주 박사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여성주의적 접근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현재 진행하는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어떤 과정이어야 하는지,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평화의 과정에서 누구의 경험을 포섭하거나 배제해 왔는지 끊임없이 관찰하여 문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여성의 활동만 살펴보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을 주체로 삼으면 기존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평화의 과정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험을 포섭하고 남성의 경험을 배제하는 것이 평화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대안이 될까?

5. 나오며

- 전체적으로 조영주 박사의 글을 읽으며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보다 조영주 박사가 앞으로 관련 논의를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었다.

-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글이 여성주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해 온 업적을 나열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do 제시하는 차원을 넘어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하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 마지막으로 분단과 평화 관련 학문적, 실천적 접근을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며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개입할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조영주 박사 주장에 동의하면서 그 “사회적 소수자/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이” 범주에 오늘 이 순간, 북한 지역 곳곳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여성과 한반도 전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소수자들 경험 역시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시도가 여성주의 관점을 추구하는 학문적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토론 2〉

발표 〈이효재의 삶과 분단시대의 비판사회학〉에 관한 토론: “이효재 사회학”의 계승을 위한 보론(補論)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이효재 선생님과 함께 했던 77학번 이대 사회학과 졸업여행의 추억.
1980년 5월 해직교수 직전 〈현대 사회학 이론〉 강의를 들었던 제자의 소회

- 이 글은 “이효재 사회학”을 비판사회학의 효시로 자리매김하면서, 이효재 선생님의 삶과 학문적 여정 그리고 사회운동가로서의 궤적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한올 한올 정성껏 풀어낸 한 폭의 태피스트리(tapestry)를 대하는 느낌이 든다. 덕분에 제자로서, 후학으로서 이효재 선생님의 삶을 상상해보면서 이효재 선생님에 대해 “아하”무릎을 칠 수 있었던 기쁨과 더불어, 각주 안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해내거나 숨겨져 있던 에피소드를 읽는 재미가 쏠쏠했다.

-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대목을 꼽는다면, 첫 세대 여성학자로서 여성의식에 눈 뜬 계기가 미국 유학시절의 경험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이효재 선생님의 가족 배경과 식민지 시대를 살아냈던 경험 등을 통해 밝혀낸 점, 미국 유학시절 구조기능론의 보수성과 실증주의 사회조사에 실망했던 이효재 선생님께서 1974년 미국 남부의 흑인대학인 Fisk University에서 흑인 사회학 Black Sociology과 만나면서 미국중심주의를 벗어나 “한국적” 비판사회학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이효재 선생님은 소수집단 minority, 주변 margin, powerless의 관점에서 주류집단, 중심, 권력층이 주도하는 사회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학문적 관점을 정립함으로써, 이후 비판사회학과 여성학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맥락

에 깊이 뿌리내린 + 한국사회 현실 적합성이 높은 패러다임 구축에 성공했으리라 상상해본다.

-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당혹스러움은, 발표자 정수복이 기록한 “이효재 사회학”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곳에 밑줄도 치고 공감하는 부분에 느낌표를 그리기도 했지만, 토론자로서 토론거리를 찾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는 데서 왔다.

가족의 민주화를 향한 갈망, 이론과 실천 간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 사회학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사회 변혁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통찰, 분단 체제가 우리의 삶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예리한 분석, 분단 체제와 가부장적 권위주의간의 관계에 대한 성찰, 기능론적 시각의 한계에 대한 비판, 양적 조사방법은 다이내믹하고 복잡다단한 현실을 포착함에 근원적 한계가 있다는 반성 등등에 과연 누가 탄지를 걸 수 있겠는지?

- 부끄러움은 평생 시대를 앞서 가면서 제자들에게 후학들에게 풍부한 사회학적 화두를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으름과 무지함을 반성하는데서 왔다.

일례로 1985년 『분단시대의 사회학』 출판 당시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화를 준비하기 직전의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갈등, 사회문화적 전근대성이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다. 그 뿌리에 분단 체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지금의 잣대로는 정확한 가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1985년 이후 한국 사회학계 안에서 “분단 사회학”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한국 사회학의 사회적 위상에서부터 이론적 개념적 지평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능했는지, 깊은 후회가 밀려온다.

□ 그럼에도 “이효재 사회학”은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를 향해서도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어젠다를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효재 선생님 주장에 내포된 진보성 내지 “시대를 앞서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례로 가족의 민주화를 주창하던 당시 한국사회학 내 가족사회학 연구는 주로 부계혈연중심의 제도사 및 친족관계 중심으로 전개되던 상황이었고, 사회적 민주화를 향한 갈망은 컸으나 구체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가족의 민주화를 둘러싼 주장이 갖는 진보적 의미를 풍성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리란 생각이다.

둘째, “이효재 사회학”에는 당위적, 규범적 주장과 더불어 추상적 개념과 민족 국가가부장제 등의 거시적 구조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다. 최근 생활사, 구술사, 라이프 스토리텔링 등의 일명 “포스트 구축주의 사회학”의 새로운 방법론적 논의가 속속 등장하면서(기시 마사히코, 2021. 『망고와 수류탄』, 정세경 옮김, 두 번째 테제.), 거시적 구조 및 역사와 미시적 삶의 교차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효재 사회학”이 갈망했으나 미처 채우지 못했던 과제를 후학들이 이어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셋째, (앞서도 반성했듯이) 분단 사회학을 한국 사회학의 핵심 영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 분단 체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야말로 사회학 내 다양한 분과학문 간 융합과 소통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은 물론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모토는 분단 체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0년대 이미 등장했던 한국 사회학의 토착화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분단 체제 연구의 활성화는 이 과정에도 의미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넷째, 실증주의적 조사방법 및 양적 통계 분석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적용을 강조해온 “이효재 사회학”의 뜻을 이어받아, 질적 방법론의 다양화 및 정교화를 추진해 볼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

법에 적합한 다양한 텍스트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요긴하게(?) 활용된 바 있는 아카이브, 개인이 남긴 일기-전기-비망록 등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동시에, 과거에는 정통 사료나 자료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오늘날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에 주목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일례로 세라 스마시의 『하틀랜드』(2021, 흥한별 옮김, 반비)는 백인 하층계급 가족의 삶을 주제로 한 개인 비망록인데, 이 책 안에는 부제에 표현되었듯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쫓딱 망하는 삶’이 생생히 펼쳐져 있다. 만일 이효재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읽으셨더라면 어떤 평을 하실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한국의 빈곤가족 연구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미 “구축된 질적 자료”의 경우는 해당 자료가 실제 연구에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구술자료의 디지털화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섯째, 비판사회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서 이효재 선생님께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닌 집단으로부터 동시에 사랑과 존경과 지지를 받았음 또한 기억할 일이다. 2003년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 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자칭 래디컬 페미니스트부터 온건 보수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배경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는 모두 이효재 선생님의 제자”임을 자랑스레 선언했던 기억이 난다. 팔순 나이에 형형한 정신으로 책을 출판하는 학문적 열정에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고, 급진주의부터 보수주의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력에 대한 경탄을 넘어 “시대의 큰 어른”임을 새삼 느꼈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토론 3〉

발표 〈분단사회 여성운동의 역사와 과제〉에 관한 토론: 다시 읽는 〈분단시대의 사회학〉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故) 이이효재 선생님의 추모식을 영상으로 지켜보았다. 직접 찾아뵙지 못한 송구함을 깊이 억누르면서 비록 전자통신수단을 통해서였지만 긴 시간 이어진 추모 모임의 뜨거움은 멀리 있는 내게도 생생히 전달되었다. 수많은 제자들과 후학들이 선생님께서 생전에 이루신 업적과 베푸신 사랑을 말과 웃음과 눈물로 조금이라도 전하고자 애쓴 자리였다. 그들이 받은 배움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에 비하면 그날의 자리가 얼마나 간소한 것인지(전혀 간소하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남기신 자취가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가슴 깊이 전해져 왔다.

오늘의 토론회는 선생님께서 청춘을 보내며 쌓으셨던 학문적 성취와 여성운동에의 기여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이 뜻깊은 시간을 준비하시고 짧은 소견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이효재 선생님의 업적을 기릴 영예(!)를 얻고 원고를 작성하느라 며칠 밤낮을 고민하셨을 김선혜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김 교수의 잘 정돈된 알찬 글은 〈분단시대의 사회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석 중 한 편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 〈분단시대의 사회학〉을 다시 펴보았다. 언제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지만,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내 연구실의 서가 가장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연구자들에게 선생님의 책은 일종의 바이블과 같은 것이었다. 성별을 떠나 한국의 어떤 사회학자, 철학자, 인문학자들도 선생님만큼, 또

그들이 쓴 어떤 책도 선생님의 이 책만큼 내게 영향을 준 것은 없다. 1979년 대학에 입학해 1980년대 대학원에 다니면서 <여성학>이라는 신생의 학문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땅에 <이이효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가슴이 뛰었다. 나는 선생님이 재직하신 이화여대 학생이 아니어서 강의실에서 뵙지는 못 했지만,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에 새롭다. 대학원 시절 (故) 김진균 교수님과 함께 신촌의 어느 카페에선가 선생님을 뵈었고 그 따스한 미소에 잠시 행복해졌다. 선생님의 그 환한 미소가 그렇다.

김선혜 교수는 여성운동가로서 선생님을 기리고 있지만, 내게 선생님은 학자로서 먼저 다가왔다. 선생님이 쓰신 이전의 글들과, 1985년 출간된 <분단시대의 사회학>은 연구자로서 이이효재라는 인물이 얼마나 깊은 이론적 사색과 넓은 통찰을 지니고 있는지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분단시대의 사회학>을 잠시 들여다보면, 먼저 사회과학의 학문적 목표는 무엇인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그 답을 ‘인간해방’이라고 정의하셨다. 그리고 인간해방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며, 한국은 ‘분단’이라는 사회적 특수성 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이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분단된 한국사회를 통치하는 정치권력의 속성은 김선혜 교수가 정리한 바대로 ‘가부장적 권위주의’다. 이이효재 선생님은 1945년 해방 이후 산업화와 박정희 권위주의 정부 시기 한국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꼼꼼히 추적하면서 반공주의와 가부장제, 권위주의가 어떻게 얽혀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지속시키는지 를 규명했다.

이이효재 선생님의 연구가 갖는 특징은 비판적·역사적·공동체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과 분단, 6.25와 산업화, 4.19와 5.16, 군부 통치와 권위주의, 광주민중항쟁 등 한국 근대사의 격변을 겪은 학자로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 분석은 단지 이론적인 관점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세밀한 역사적 자료와 경험에 근거를 둬으로써 구체성과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선생님의 글은 기독교적 윤리를 토대로 공동체주의적 비전을 담고 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지주였던 민중신학의 흐름이지만 덕분에 선생님의 글과 비전은 따뜻하고 희망적이다.

김선혜 교수의 지적대로 선생님은 한국사회의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성별·사회적 불평등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아픔이 발생하고 재생산되어 왔음을 꿰뚫어 보셨다. '가족' 연구 자체가 희소하고 그나마 '전통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유교문화 연구에 치중했던 당시 남성중심 학계에서 '가부장적 가족'이라는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신선하다 못해 매서운(?)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 책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쓰신 한국가족의 가부장제에 관한 역사적 분석은 박사과정 시절 읽었던 가장 흥미롭고 가슴 뛰는 텍스트로 기억에 남아있다. 지금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읽히는 텍스트의 하나다.¹⁾

그러나 역시 김선혜 교수도 지적하고 있듯이,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리뷰는 '한국의 여성운동'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선생님이 꿈꾸신 여성운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김선혜 교수의 글을 빌려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운동의 의미와 목적은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여권신장에만 그 참뜻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권력층이나 불의한 권력 행사에 대한 끊임없는 민주적 도전이며 불의한 사회 제도, 관습 및 이것을 대표하는 권력층에 대한 도전"으로 제시된다(이효재, 1978: 1).' 한국의 여성운동은 한국사회가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별 불평등과 계급·계층, 지역 등 복수적·교차적 불평등을 고려하는 것이며, 여성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 빈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피지배층을 아우르는 연대의 페미니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생님의 이런 지향은 1987년 민주화운동에 함께 했던 민주여성운동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의 한국 여성운동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되고 있다.

2021년 현재 여성운동은 더 이상 주변적이지 않으며, 여성은 더 이상 가부장적 억압과 차별에 눌려 숨죽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여성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여가는 주요 세력이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한국사회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규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은 아직 '주변적 가족'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호주제는 폐지되었지만,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일터에서 강력하게 살아남아 불황 시 여성 우선해고나 성차별적 임금의 관행을 지속시키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이 글들은 후에 『조선조 사회와 가족 : 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로 출간되었다(한울, 2003).

김선혜 교수의 논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가지 다소 다른 생각이 있다면 이런 것이다. ‘저출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직면한 삶의 조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혼의 삶도 행복을 위한 권리이지만, 아이를 낳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한국의 기록적인 낮은 출산율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성이 초래한 위기적 상황을 드러내는 지표다. 따라서 출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처한 삶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은 내가 마지막으로 선생님을 뵈었던 기억과 관련이 있다. 선생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세우신 진해의 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계셨던 모습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어느 페미니스트의 말처럼, 후학과 제자들, 미래의 딸들과 아들들을 위해 분투해 오신 것이 선생님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학문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배운 나와 같은 세대의 연구자들에게 이이효재 선생님은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가장 학자답고 가장 운동가다운 삶을 사신 분이다. 때문에 감히 ‘가장 닮고 싶은 분’, 요즘 말로 ‘워너비’이다(아마도 이를 수 없는 꿈이겠지만). 페미니즘은 운동에서 시작해 연구로, 다시 운동으로 이어지는 순환 속에서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연구와 실천을 함께 해 가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힘겹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해 주실 것 같다. 선생님이 남기신 글과 어린이도서관과 수많은 운동의 기록을 통해서.